

6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462.62 (+30.55)		816.51 (+14.09)
	금리 (국고채 9년)		환율 (원·달러)
	3.774 (-0.017)		1296.90 (-4.70)

[시중은행 과점 논란]
‘완전 경쟁’
안정성·실효성 의문
금융시장 실익 따져야
04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4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3월 7일 화요일

산업계, 스마트팩토리·중고차 등 미래 먹거리 확보 사활

막으려는 ‘주춤 시즌’

LG전자, 신사업 정관 추가 주목
화장품판매·기간통신사업 반영

현대차, 중고차 시장 진출 공식화
부동산 개발·임대업도 추가

산업계가 ‘주춤 시즌’에 돌입하는 가운데, LG전자와 현대차 등 주요 기업들은 신사업을 공식화하며 미래 먹거리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들은 이달 셋째주부터 정기 주주총회를 계획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15일, 포스코홀딩스가 17일 개최를 공시했고, 현대자동차가 23일, LG전자가 27일로 뒤를 이은다. SK하이닉스는 29일, SK스퀘어가 30일 등 월말까지도 주춤은 이어질 예정이다.

LG전자는 가장 주목받는 주춤으로 평가받는다. 최근 들어 신사업 발굴에 공을 들이는 상황, 정관을 추가하고 새로운 사외이사를 선임하며 미래 준비를 본격화하는 자리기 때문이다.

LG전자는 이번 주춤에서 서승우 서울대 교수를 새로운 사외이사로 선임하며 전장 사업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 교수는 현재 서울대 지능형차 IT연구센터장과 대한전자공학회장을 맡고 있는 전장 부문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특히 LG전자는 새로운 사업을 정관에 추가한다. 화장품판매업과 기간통신사업이다. 추진중인 신사업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그 중에서도 기간통신사업은 LG전자가 구광모 대표 취임 이후 공을 들여온 미래 먹거리 기술을 본격적으로 상용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5G 기술을 활용해 특정 기업이나 장소에 연결성을 제공하는 무선 사설망 ‘프라이빗 5G’ 사업을 하기 위함. 스마트팩토리 구축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얘기다.

LG전자는 일찌감치 스마트팩토리와 관련한 기술 개발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휴대전화 사업을 철수하면서도 5G와 6G 등 통신 기술 개발을 지속해왔고, 2018년 로보스타 인수에 이어 S G로보틱스와 로보티즈 등 로봇 관련 기업 투자도 이어왔다. 창원 공장에 이어 미국 테네시 공장을 스마트팩토리로 탈바꿈시키며 기술력을 증명하기도 했다. 태양광 발전 기술력도 수준급, LG에너지솔루션과 LG유플러스 등 계열사들과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화장품 판매업은 뷰티기기 프라임을 활용해 사업 분야를 확장하기 위함으로 추정된다. 종전까지는 가전제품만을 판매했지만, 앞으로 화장품 분야를 접목해 뷰티 산업 전체로 진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마찬가지로 계열사인 LG생활건강과 협력이 가능하다.

LG전자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광화문 앞 일제 강점기 철로 발굴

서울 광화문 월대 발굴조사 현장에서 일제 강점기 전차 철로가 발견됐다. 전차 철로는 1917~1966년 존재했던 것으로 안국동의 전차 철로와 효자동의 전차 철로가 세종로 방향으로 이어진 형태다. 서울시와 문화재청은 오는 16일~18일까지 사흘간 광화문 월대와 주변부 발굴조사 현장을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광화문 앞 월대 발굴현장 모습.

/뉴시스

사업 방향성을 정하지는 않았다”며 “이미 자사 공장을 스마트팩토리로 구축하면서 기술력을 증명한 만큼, 다양한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는 드디어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한다. 정관에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과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한다. 인증중고차 관련 신규 사업 추진이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업 역시 중고차 매장을 위한 ‘하이테크 센터’ 신설을 위한 조치다.

〈2면에 계속〉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韓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 배상 민간 자발적 기여로 재원 마련”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정부입장

“韓日 관계 사실상 방치돼 와
양국 공동이익 부합 방안 노력”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인 원고에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를 위한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6면〉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을 통해 “2018년 10월과 11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됐다”며 “2019년 8월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 이어서 코로나 발생 이후 인적교류 단절 등으로 경색된 한일관계는 사실상 방치돼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5차례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고위급을 포함한 양국 외교 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면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를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박 장관은 국내의견 수렴 및 대일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2013다 61381, 2013다 67587, 2015다 45420)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법을 발표한 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고 이도윤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주 단위 연장근로, 분기·반기·연까지 확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선택근로제 허용기간 확대 등
사업주·근로자 선택권 강화

올해부터 노동시간 유연화가 본격 적용된다. 그동안 주 단위로 연장근로가 가능했다면 앞으로 월이나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돼 그만큼 사업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선택권이 넓어진다. 선택 근로제 허용 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났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근로시간은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꼭 필요한 때 집중해서 일하고, 휴식·휴가는 쉬고 싶을 때



더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며 “현재 주단위에 한정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등까지 확대해 산업 현장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정하는 선택근로제의 허용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추 부총리는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해 3개월 내 탄력근로 시에도 사전 확정된 근로시간을 사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유연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근로자가 초과근로 수당과 추가 휴

가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된다. 이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기간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함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과도한 연장 근무에 따른 근로자 건강권 문제 지적을 의식해 관련 안정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연장근로 확대 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조치 도입을 의무화하고 야간 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그동안 노동법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를 명문화해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 협의 시 근로자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한일 강제징용 해결 방침에 경제 6단체 환영 뜻 /사진 뉴시스
▲ 민주당 광주시장·정의연 등 ‘위안부합의보다 못해’ 비판 /사진 뉴시스

▲ 이주호 교육부 장관, 학교폭력 엄중 대처 방침 밝혀
▲ 한미연합훈련에 핵 탑재 ‘B-52H’ 폭격기 동참



▲ 국민의힘, 전주를 국회의원 재선거에 김경민 예비후보 확정
▲ 대통령실 ‘전대 개입’ 논란에 안철수 법적 대응 시사 /사진 뉴시스

“美 반도체법, 경영침해·기술 노출 우려… 투자조건 부당”

이창양 산업부 장관, 우려 표명
“보조금 지급 조건 대응 까다로워
기업들, 美 투자 매력 낮아 질 것
초과이익 환수, 협상여지 꽤 남아”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의 반도체 제조시설 인센티브에 대해 우리나라 관계부처 장관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이 인센티브를 제시하지만 기업의 경영이나 기술 정보 노출이 우려되고 초과이익환수 등의 투자조건이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조건에 대해 우리 기업들과 반도체 산업계, 정부는 우려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우선 보조금 지급 조건이 상당히 많고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 또 조건들의 성격도 상당히 상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지급 조건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당히 많은 노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수출 전략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 보조금 지급 조건이 기업들에게 많은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반도체지원법 인센티브프로그램 중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미국에 반도체 시설 투자 인센티브로 527억 달러(약 69조원)의 재정지원과 투자세

액공제 25%를 받지만, 미국 정부에 기업 재정 여력과 현금 흐름, 고용계획 등 내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미국 정부와 초과이익 일부를 공유해야 한다.

이 장관은 특히 기업의 경영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공급자 정보를 내라든지 기업의 경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든지 여러가지 경영의 아주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 제출 의무가 들어있다”며 “기술정보도 상당 부분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미국에 대한 투자 비용이 상당히 높아지고 기업들의 미국 투자 매력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장관은 “금리가 많이 올랐고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기 때문에 미국 투자 비용이 상당히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육 서비스 부담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부담들이 있어 미국 투자에 대한 투자 비용을 상당히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수령이나 미국 투자가 매력이 좀 낮아질 걸로 기업들은 판단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초과이익 환수 기준에 대해 미국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보조금을 주는 것과 관련된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고 안하고 등의 기업 전략은 있을 수 있다. 서로 협상할 여지가 꽤 많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추후 10년간 중국 투자를 금지하는 가드레일 조항과 관련해서는 “작년 8월부터 협의를 시작해 미국측으로부터 한국 기업에 부담되지 않는 방향으로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얻은 바 있다”며 “최대한 중국에 있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고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3월 중 가드레일에 관한 구체 방침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 “기본 원칙은 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이 정상적 경영 활동에 크게 부담되는 사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반도체 공급 불안을 초래하는 이런 여러가지 장애가 생기면 그건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 산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 기업 경영 활동에 대해 최대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장관은 반도체 전략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상한을 골자로 한 조특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제주 제2공항 ‘청신호’… 환경부, 조건부 동의

도의회 동의 과정서 결정 뒤집힐 수도
지역 주민에 충분한 정보 제공하고
제기되는 쟁점, 검토·반영 해야

제주도 제2공항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환경부가 6일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조건부 동의’했다. 다만, 여러 절차가 남아 있어 건설 사업 확정으로 보긴 이르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기관은 제주도다. 제주특별법상 제주도가 협의 의견을 낼 때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해 이 과정에서 결정이 뒤집힐 수도 있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협의’했다. 제2공항은 제주 남동쪽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545만7000㎡ 부지에 1개 활주로를 갖춘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예산만 약 6조667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국토부는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될 경우 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건설 사업 추진을 공식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 기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와 미리 협의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후 절차인 실시 계획을 승인하기 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한다.

지난 2019년 9월과 2021년 7월 두 차례 제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환경부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모두 반려했다.

반려 이유로 비행 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서식지 보호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과 항공기 소음영향 재평가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습굴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을 들었다.

국토부는 올해 1월 5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보완해 제출했고, 환경부가 이날 조건부 협의했다.

환경부는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

합성이 인정되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절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 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 협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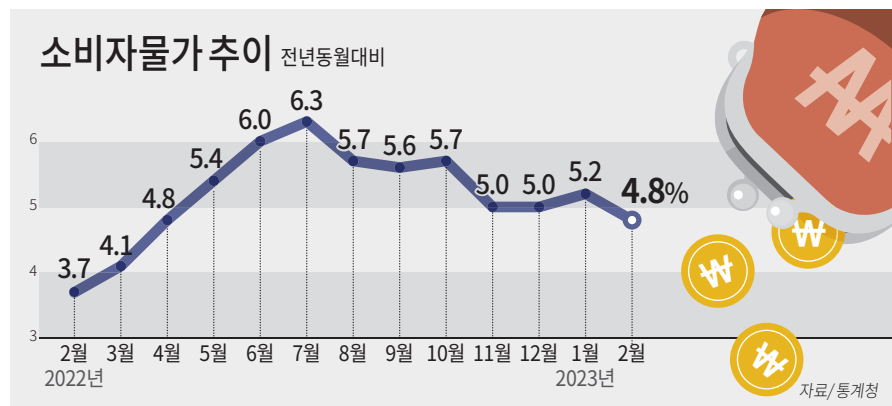
조건부 협의에는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반영하도록 했다.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그에 따른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세워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는 방안도 담겼다.

그간 제기됐던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법정 보호생물 보호, 습굴 영향 등도 정밀한 현황 조사와 저감 방안을 철저히 강구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환경부는 “환경적인 보존 가치라는 몇몇 항목에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이 사업 전체에 부동의 의견을 낼만 한 것은 아니라는 전문 기관의 검토 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소비자물가 4.8% ↑… 열 달만에 5% 아래로

통계청, 2월 소비자물가 동향
농축수산물 등 1.1% 상승 그쳐
전기료·도시가스 등 최대폭 증가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로 떨어졌다. 5%대 고물가가 이어져 온지 10개월 만이다. 전기와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에도 농축산물 가격, 석유류 등 휘발유 가격 상승세가 크게 꺾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는 가정 하에 향후 물가는 이 같은 둔화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38(2020=100)로 1년 전보다 4.8% 올랐다. 상승 폭만 보면 지난해 8월(5.7%), 9월(5.6%), 10월(5.7%), 11월(5.0%), 12월(5.0%), 올해 1월(5.2%)까지 5%대 물가가 유지되다 2월 들어 4%대로 하락했다. 열 달만에 물가 상승률이 5%대를 밑돌았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 물가가 1.1% 상승에 그쳤다. 농산물 가격은 1.3% 오르는데 그쳤다. 풋고추(34.2%), 양파(33.9%), 파(29.7%), 오이(27.4%) 등 채소류는 올랐지만, 토마토(-14.8%)와 딸기(-7.8%), 사과(-6.9%) 등 과일류와 쌀(-8.1%) 등은 내려갔다. 특히, 축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2.0% 하락했다. 국산 쇠고기(-6.1%),

수입 쇠고기(-5.2%) 등이 내린 영향이다. 최근 대형마트 등 축산물 할인 행사가 진행되면서 2019년 9월(-0.7%) 이후 3년 5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게 통계청 설명이다.

기름값 인하도 물가 하락세에 영향을 줬다. 석유류 가격은 전년 대비 1.1% 하락했다. 2021년 2월(-6.3%) 이후 2년 만에 내려갔다. 휘발유(-7.6%), 자동차용 LPG(-5.6%) 등이 내렸고, 경유(4.8%), 등유(27.2%) 등이 올랐다.

반면,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1년 전보다 28.4% 상승했다.

전기료(29.5%), 도시가스(36.2%), 지역 난방비(34.0%) 등의 인상으로 2010년 1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식 등 개인 서비스 물가는 전년 대비 5.7% 올랐다. 생선회(7.8%) 등 외식 물가가 7.5%, 외식 외 서비스 물가가 0.7% 각각 상승했다.

전세(1.6%), 월세(0.6%) 등이 오르면서 집세도 1.1% 상승했다.

채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보다 5.5% 상승했다. 생선, 해산물, 채소, 과일 등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보다 3.6% 올랐다.

정부는 이작 물가 불안 요인이 남아 있지만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향후 물가는 둔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SK하이닉스·LGD, 여성 사외이사 2명 확보

》1면 ‘막 오르는 주총시즌’서 계속

현대차는 이사회도 확대한다. 사내 이사에 호세 무뇨스 사장을, 사외이사에는 임기가 끝나는 최은수 변호사 대신 장승화 서울대 교수와 최윤희 건국대 교수를 새로 선임한다.

여성 사외이사 확대도 올해 주총 주요 안건이다. 현대차는 새로운 사외이사 2명을 모두 여성으로 채우면서 비중

을 17%에서 29%로 확대했다. SK하이닉스도 김정원 김연장 고문을 신규 선임하며 한애라 성균관대 교수와 함께 여성 사외이사를 2명으로 늘린다.

LGD디스플레이도 21일 열리는 주총에서 박상희 카이스트 교수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 강정혜 서울시립대 교수와 함께 여성 사외이사를 2명 확보할 계획이다.

그밖에 SKC와 SK에코플랜트, 삼양

사 등도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냈다.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는 기업은 여성 사외이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는 규정을 한발 앞서는 조치다.

한편 포스코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지난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본사를 서울로 옮겼다가, 지역 사회 등 반대가 거세지면서 다시 포항으로 이전을 결정할 상태다.

/김재웅 기자 juk@

주 69시간 근무 가능… 초과근로 ‘수당-휴가’ 선택권 부여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주 52시간 틀 유지하고 유연성 더해 근로자대표제 권한·절차 명문화 건강권 관련 안전장치 마련 방침 野·노동계 반대… 국회 처리 미지수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64시간 또는 최대 69시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덜 일할 수 있어 장기 휴가도 가능해지는 등 노동시간이 보다 유연해진다. 경영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자들의 건강권 위협을 이유로 반대했다. 근로시간 제도가 개편되려면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한데 노동계는 물론 야당 반대가 커 국회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라 기본 40시간에 최대 연장근로 12시간이 가능한 ‘주 52시간제’의 틀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단위 연장근로의 경우 노사 합의로 ‘월·분기·반기·연’으로 선택이 가능해진다.

이 계산법으로 보면 분기의 경우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간은 624시간 일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노동자들이 장시간 근로에 놓일 수 있어 정부는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시간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했다.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자는 한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정부는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 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근로자대표제를 손 보

연장근로 총량관리안

현행 주 52시간제 (주 40시간+연장근로 주 12시간)

연장 근로 추가 선택지

	① 월(1개월)	② 분기(3개월)	③ 반기(6개월)	④ 연(1년)
총량	52시간	140시간	250시간	440시간
주평균	12시간	주평균 10.8시간	주평균 9.6시간	주평균 8.5시간

- 근로일만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 관리단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 감축(분기 90%, 반기 80%, 연 70%)

주당 최대 69시간 근로 가능

하루 24시간-11시간(연속휴식 보장)-1.5시간(4시간 마다 30분 휴게시간)=11시간 30분

11시간 30분 × 주6일(휴일 제외)=69시간

자료: 고용노동부



시 유연한 대응이나 다양한 시간 선택권이 제한돼 온 어려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오히려 ‘몰아치기 노동’이 늘어나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한국노총은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유일한 조치”라며 “개편안은 1주 55시간을 장시간 노동의 기준으로 삼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도 역행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부는 과도한 연장 근무에 따른 근로자 건강권 관련 안전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연장근로 확대 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조치 도입을 의무화하고, 야간 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의 반대가 커 법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금융위, 금융시장·부동산PF 리스크 점검회의

5200개 사업장 건전성 점검… 건설사 보증 PF-ABCP 매입

부동산 PF 연착륙 지원방안 논의 캠프 1조 펀드 상반기 중 추진 계획

금융당국이 전국 5200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분류한 뒤, 정상 사업장에는 보증을 통해 단기 대출을 장기대출로 전환한다. 사업성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대주단 협약을 통해 만기연장 등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부실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새로운 사업주체에 사업장을 매각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회사채·단기 금융시장 및 부동산PF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부동산 PF는 사업성과 미래의 수익 흐름을 보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공급을 계획 관리 감독하는 시행사와 시공사(건설사), 자금을 담당하는 대주단, 부동산 신탁을 담당하는 신탁회사, 주택을 분양하는 수분양자 등으로 구성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회사채·단기 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감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 관계기관들과 회사채·단기 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대응방향 등 민간 사업재구조화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돼 있다.

권 상임위원은 “지난해 부동산PF 부실우려로 회사채 단기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됐지만 시장안정조치 등으로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며 “다만 고금리, 고물가가 이어지고 부동산 시장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 부동산 PF의 어려움이 확대될 수 있어 선제적으로 정책 대응수단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업장별 맞춤형 지원 강화

금융위는 우선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장을 ▲정상사업장 ▲사업성우려 사업장 ▲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분류하고, PF대출현황과 건전성, 진행상황(공정률·분양률)을 점검한다.

정상사업장은 20조원 규모의 사업장 보증을 통해 브릿지론을 본PF로 전환한다.

브릿지론은 시행사의 사업계획서와 시공사의 참여 의향서, 토지소유주의 약정서를 통해 계약금과 사업비를 대출해주는 제2금융권 상품이다. 브릿지론을 받으면 제1금융권에서 땅값과 사업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이것이 본PF다. 정상사업자라면 보증을 통해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PF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은

장기대출로 전환한다. PF-ABCP는 만기기간이 3개월, 6개월 등으로 짧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장기대출로 전환함으로써 만기 이후 증권사, 건설사로 리스크가 전이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사업성우려 사업장은 대주단과 협약을 통해 사업장 정상화를 추진한다. 대주단은 만기연장을 통해 채권행사를 유예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재조정해 사업정상화 계획을 마련한다.

민간금융그룹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도 사업장의 정상화를 유도한다. 앞서 KB금융그룹은 5000억원 규모의 부채담보증권(CDO)을 발행한 현대·롯데건설 등 4~5개 대형 건설사의 수도권 사업장 중 본PF로 넘어가지 못한 브릿지론을 자체 대출로 전환한 바 있다.

캠코도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부실우려 PF자산을 결집·인수해 사업을 정상화한다.

부실우려 사업장은 새로운 사업주체에게 사업장을 매각한다. 채권이 신속하게 매각될 수 있도록 유암코, 캠프 등 민간과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채권(NPL) 시장참여도 확대한다.

◆건설사, 정책금융 확대

이 밖에도 시공사인 건설사 지원과 부동산신탁사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기관은 부동산 경기위축으로 미분양 물량이 늘어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8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 건설사에 총 18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기존시장안정프로그램을 통해 건설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 건설사의 보증 PF-ABCP를 매입한다.

부동산신탁사는 건설사부실 등 공정 지연 사유가 발생시 사업장 공정을 재개하고, 준공완료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대체 시공사 풀(Pool)을 구축해 지연사유 발생시 시공사를 교체하고, 준공관련 협조 필요시 대주단 부동산신탁사 간 합의 조정 체계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사업성우려 사업장 지원을 위한 대주단 협약계정과 캠코의 1조원 펀드를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올해 코로나 관련 정책 1700억위안 투입… “관리조치 지속”

(한화 약 32조)

● 차이나 뉴스&리포트

지난해 코로나 관련 지출 약 80조 지방 정부 재정부담 어려움 더 커

코로나19가 중국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다. 이미 엄격한 통제에 기반한 ‘제로 코로나’ 방역을 고수하기 위

해 80조원에 달하는 돈을 쏟아부는데 이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올해도 코로나19 관련 비용으로만 30조원이 넘게 들 것으로 추산됐다.

6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코로나19 통제를 위해 1700억위안(한화 약 32조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지난 주말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지방 정부들은 그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쓴 막대한 비용을 보고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국이 관련 지출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개 성 및 시의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만 대규모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검역, 접촉자 추적, 백신 접

종 등 제로 코로나를 위해 4200억위안(한화 약 79조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예산 보고서는 “지난해 공공 재정은 여러 도전에 직면했었고, 재정 운영은 빠듯해 어려움이 컸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 정부별로 보면 코로나19에 따른 재정 부담이 더 컸다.

경제매체 차이에 따르면 제조 중심 지인 광둥성은 작년에 PCR 테스트와 의료 종사자에 대한 보조금, 기업 보조

금 등을 포함해 코로나19 관련 비용으로만 710억위안(한화 약 13조원)을 썼다. 저장성과 수도 베이징이 각각 434억위안, 300억위안 규모다. 빈곤한 산시성조차도 제로 코로나를 위해 190억위안이나 써야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통제 예산은 B급 전염병에 대한 조치와 함께 코로나19 관리 정책의 꾸준하고 질서 있는 이행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삼미 기자 smahn1@



서울 시내에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은행 ATM 기계가 나란히 설치된 모습.

‘완전경쟁’ 안정성·실효성 의문… 금융시장 실익 따져봐야

당국, 은행권 제도개선 TF 회의
신규인가 등 경쟁촉진 방안 논의

일각선 관치·포퓰리즘 비판도
“숫자 늘리기 정답 될 수 없어”

금융당국이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과점체제 해소를 위해 신규은행 인가 등 경쟁자를 늘려 과점 체제를 해소하려 하고 있다. 다만 태스크포스(TF) 내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과 정부와 금융당국의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 제도 개선 TF’는 지난 2일 첫 실무자업반 회의를 갖고 은행권내 경쟁 촉진과 구조 개선을 위한 세부 과제를 논의했다. 논의 방향은 ▲신규은행 추가인가 ▲은행과 비은행권 간 경쟁촉진 ▲기존 은행권내 경쟁 촉진이다.

은행들이 경쟁을 통해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과점 체제에서 ‘이자 장사’로 손쉽게 이익을 거두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5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순이익은 신한금융 4조4233억원, KB금융 4조4133억원, 하나금융 3조6257억원, 우리금융 3조1693억원, 농협금융 2조2309억원 등으로 18조원을 돌파했다.

◆“과점 체제 깨면 금융안정 어려워”

사상 최대 실적은 금리 인상을 맞아 예대금리차를 통해 올린 이자 수익이다. 지주별 이자이익은 KB금융 11조

3814억원, 신한금융 10조6757억원, 농협금융 9조5559억원, 하나금융 8조9198억원, 우리금융 8조6966억원 규모로 1년 간 벌어들인 이자이익이 50조원에 근접한다.

이처럼 시중은행 독식 형태를 해소하기 위해 제4인터넷은행,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인가 등 또 다른 ‘메기’ 투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취지 자체

가 5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한 과점 체제 속 ‘메기’ 역할 및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대출 확대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터넷은행과 시중은행의 차이점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중금리대출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인터넷은행과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개인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주력으로 하는 시중은행과 경쟁의 초점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5대 은행의 총자산 비중은 전체의 62~6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7년 인터넷은행 출범 이후에도 은행의 과점 체제는 여전하다. 인터넷은행의 비중은 2%에 불과하다.

또한 핀테크 업체는 대손충당금·예대금 규제나 각종 위험에 대비한 자본 규제 등이 적용안돼 향후 금융시장 안정 측면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은행 숫자 늘리기는 정답 아니다”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것 역시 건전성 악화 문제가 발생한다.

지역 경제 침체에 따른 성장 한계와 디지털 경쟁력 확보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한 만큼, 기존 지방은행의 영업 방식과 수익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은행의 숫자를 늘리는 건 정답이 될 수가 없다”며 “추가 설립된 은행들이 제대로 은행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 금융의 부실화 같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내부에서도 국내 은행의 과점 강도가 높지 않다고 인정하면서 정부의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과 금융당국의 은행 이사회 정례회의, 금리 산정 개입 정책 등이 새로운 ‘관치’란 지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국내에서 사업권을 따서 사업하는 곳은 모두 공공재라는 말인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라며 “금융은 정확하게는 공공재도 아니고 사적 재화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경쟁기류 올라타는 지방은행… 수도권 여신 등 반사이익 기대감

빅테크 제휴 등 경쟁력 확보 분주
일각선 지방은행 정체성 퇴색 우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독과점’을 지적함에 따라 지방은행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정부는 시중은행 과점체제를 흔들기 위해 기존 지방은행 중 요건을 갖춘 곳의 규제를 완화해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에서 금리와 영업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소기업 대출에 집중해오던 지방은행도 가계대출 고객을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제도개선 TF 첫 실무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기존 저축은행을 새 지방은행으로, 기존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실화할 경우 5대 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이 과점체제를 이루고 있는 은행권에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실제 주요 지방은행은 최근 수도권 진출에 속도를 높이는 데 이어 빅테크



(왼쪽부터) DGB금융·BNK금융·JB금융지주 본사.



/각사

서비스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시중은행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나서고 있다.

먼저 국내 주요 지방은행의 수도권 여신 비중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대 지방금융지주(BNK·JB·DGB)의 전체 원화대출금 중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비중은 14.6%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인 2018년(9.9%) 대비 4.7%포인트(p)가량 상승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JB금융이 수도권 여신

비중을 가장 많이 늘렸다. 전북·광주은행의 수도권 여신 비중은 28.2%로 BNK금융(부산·경남은행, 8.4%)이나 DGB금융(대구은행, 15.8%)에 비해 큰 폭으로 앞섰다.

반면 최근 5년간 성장세에선 DGB와 BNK가 앞섰다. 기업영업전문역(PRM) 제도 등을 도입해 수도권에서 지속적인 영업을 이어온 DGB는 지난 5년간 수도권 여신 성장률이 279.9%에 달했다. BNK금융 역시 202.8%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JB는 23.23%로 큰 두각은 보이지 못했다.

지방은행이 수도권 진출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은 본거지인 지방의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의 인구감소 영향으로 성장성에 제약을 받으면서 수도권에서 활로를 뚫고 나선 것이다.

여기에 지방은행들은 빅테크 업체와도 손을 맞잡고 대출금 규모를 빠르게 확장해 나가고 있다.

토스에 따르면 토스의 대출 비교 서비스에 입점한 5대 지방은행(광주·경남·대구·부산·전북은행)이 지난해 토스를 통해 실행한 연간 대출금은 1조

6015억원을 기록했다. 2019년 251억원에 불과했지만 3년 사이 60배 이상 성장했다. 2020년에는 4573억원, 2021년 9532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연간 증가율은 2021년 108%, 2022년 68%를 나타냈다.

이는 빅테크와의 제휴를 통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모바일 플랫폼 경쟁력을 보완하면서 전국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한 것이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금융사 한 관계자는 “최근엔 지방 주력 산업의 성장세가 예전만 못한 분위기다”면서 “지방은행이 수도권으로 활로를 넓히는 것이 금융권에서 생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지방은행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을 우려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아성을 구축한 시중은행은 물론, 신흥강자인 인터넷전문은행도 중금리 및 기업 대출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만큼 경쟁이 격화될 수도권 시장에서 지방은행만이 가진 강점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의 시작점

눈앞에 펼쳐질 ICT세상, SK하이닉스가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與 “국익위한 대승적 결단” vs 野 “피해자 짓밟는 2차 가해”

‘제3자 변제안’ 與野 충돌

與 “북핵 안보위기 앞에서
한일·한미일 안보협력 절박”

野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
삼권분립 정신 깨부수는 행위”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제3자변제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치권에선 역사관이 서로 충돌하며 후폭풍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한국과 일본의 미래를 강조하며 국익을 위한 관계 개선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정부 발표 후 논평을 내고 “실타래가 뒤엉켜 있다고 놔둘 수만은 없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정부안을 지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의 발표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의 출발점이다. 또한 ‘미래’와 ‘국익’을 향한 대승적 결단이자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라며 “일본 정부의 성의 있고 전향적인 화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강제징용문제 해결을 위해 용기 있는 첫걸음을 뒀 수 있었던 것은 고려의 피해자분들에 대한 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책임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치열한 고민, 그리고 절실함이었다”며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핵 안보 위기 앞에서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다. 일제의 잔혹한 역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발목 잡아서도, 또한 과거에 매몰된 채 강제동원 해법이 또 다른 전쟁의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 직접배상 촉구 의원 모임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이후 취재진을 만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신년기자회견에서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을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한일관계를 국내정치에 활용하면서 ‘토착왜구’, ‘죽장가’로 반일감정을 극대치로 끌어올렸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부가 맺은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해 놓고, 대책 마련은 모른체 했다.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정치적 부담도 느낄 수밖에 없고 엄중한 세계 정세 변화, 한미일 안보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

조되는 시점, 미래세대의 양국간 교류 대한 기대 열망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해법 모색 아니었을까”라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즉각 규탄성명을 내며 피해자의 목소리가 제거된 정부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며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 53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국 한국이 모든

책임을 떠안고, 가해국 일본의 책임은 완벽히 면제시키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을 즉각 파기 ▲일본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을 일본의 사죄로 수용한다는 굴욕적 결정을 철회 ▲일제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국기문란 행위, 삼권분립 훼손 행위,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배상안은 대한민국 헌법 최고 기관의 판결을 뒤흔들며, 헌법이 명시한 삼권분립의 정신을 일본을 위해 스스로 깨부수는 행위”라며 “더욱이 ‘불법적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명시한 대법원의 판례를 우리 정부가 스스로 부정하는, 일본이 그토록 원했던 ‘합법적 식민지배’ 주장을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해주는 꼴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상무집행위원회 발언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방식은 ‘강제징용은 불법성이 없고, 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는 꼴”이라며 “대법원 판결까지 정면 위배하며 서두르는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압도적 투표율에, 김기현 vs 결선투표 ‘관심’

與 3·8전대 ‘최고 투표율’ 흥행

김기현 “절대 다수가 김기현 지지”
안철수 “대통령실 개입의혹 답변을”
천하람 “金, 尹에 누 끼치는 민폐후보”

국민의힘 3·8전당대회가 ‘최고 투표율’로 흥행 동풍을 일으키고 있다. 2021년 이준석 전 대표를 선출한 전당대회가 기록한 역대 최고 투표율(45.35%)까지 뛰어 넘었다. 역대급 흥행에 따라 당 대표 경선 승자가 ‘대세론’을 형성한 김기현 후보일지, 막판 변수로 뒤집힐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누적 투표율이 53.13%(83만7236명 가운데 44만4833명 투표)로 집계된 사실을 공시했다. ARS 투표가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해 7일 오후 6시에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투표율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측된다. 전당대회 최종 투표율은 지난 4~5일 모바일, 6~7일 ARS까지 합산해 8일 최종 발표한다.

당은 역대 최고 투표율에 고무적인 분위기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84만 당원 선거인단이 정당 민주주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것”이라며 “압도적으로 높은 투표율에는 윤석열 정부를 튼튼히 뒷받침해 대한민국을 도약시킬 당 지도부를 만들겠다는 열망과 이번 전당대회를 단결, 화합, 전진의 장으로 만들라는 명령”이라고 평가했다.

당권 주자들은 투표율 고공행진에 자신에게 유리한 표심이라고 해석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나경원 전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민의힘 동작을 나경원 당협위원장 사무실에서 열린 동작을 당원간담회에서 손을 잡고 있다. /뉴시스

각종 여론조사 상 ‘대세론’을 형성한 김기현 후보는 6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표심의 흐름을 보면 절대다수가 김기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게 현장에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높은 투표율이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한편, ‘연포탕’(연대·포용·탕평) 행보도 이어갔다. 당 대표 예비경선 경쟁자였던 조경태·윤상현 의원에 이어 김 후보는 6일 오후 나경원 전 의원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를 당원협의회도 찾았다. 김장(김기현-장제원)을 시작으로 김나(김기현-나경원) 연대까지 막판 표심 물이에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땅 투기 의혹’,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의혹’ 등이 전당대회 변수로 작용해 김 후보의 과반 득표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되는 데 대해 대응하는 행보로도 풀이된다. 이와 관련 경쟁자인 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

보는 김 후보의 땅 투기 의혹,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의혹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견제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과 선을 그으면서도 “(대통령실이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적했다.

천하람 후보는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기현 후보를 겨냥해 “오죽하면 (대통령실이)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김 후보 그 자체가 대통령께 큰 누를 끼치는 민폐 후보”라며 비판했다. 황교안 후보도 같은 날 SNS에 김 후보를 겨냥해 “그동안 김 후보가 대통령이 자신을 민다며 대통령 팔이를 하고 다니는 것을 보고 여러 차례 경고했던 것”이라며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정의당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추진을”

“국민의힘, 수사하되 특검 불가 입장”
더불어민주당과 논의 이어가기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6일 거대 양당 원내대표를 만나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제(특검)에 대한 설득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특검 불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의당은 민주당과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대장동 50억 클럽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원씩 주기로 했다는 녹취록에서 비롯됐다.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과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가 화천대유에 6년 근무하고 퇴직금을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한 과 전 의원에 대한 뇌물 혐의가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되며 야권에서 특검에 대한 논의가 잇따랐다.

정의당은 지난달 20일 특검안을 발의하면서 특검 추천 과정에서 교섭단체 속하지 않은 정당을 배제하도록 해 거대양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배제했다. 두 정당 모두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입장차를 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나 “50억 클럽 관련해서 국민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해소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시간을 드리기로 했는데, 국민의힘 입장은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다. 특검과 관련해선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면담 후 기자들에게 “과 전 의원의 건은 이미 기소돼 있어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검찰이 항소심에서 검사를 보장해서라도 유죄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밖에 (50억 클럽의) 이름이 떠도는 데에 대해선 아직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수사 미진 이유로 지금 특검을 하자고 하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남 후에 정의당과 민주당이 50억 클럽 특검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특검안을 발의했으나, 추천과 정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하는 안이 핵심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대표성, 공식성을 감안한 형식적 절차를 갖추되 정의당이 국민 납득할 수 있는 추천방안을 제시한다면 민주당은 실질적인 추천 과정에 대해 열어놓고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KYO
WON 교원투어

떠나고 싶은 마음에게
쉽게 답을 주는 여행사

여행이지

교원이 만든 새로운 여행사 여행이지와 함께
당신이 원하던 여행을 쉽게 떠나 보세요



WEB AWARD
22 INNOVATOR

웹어워드코리아 2022
문화/레포츠 부문 대상 수상

수상대상 (주)교원투어 여행이지 홈페이지 X 파인너츠



www.kyowontour.com

카드업계, 무제한 포인트 적립 등 해외여행 특화상품 강화

해외 항공편 재개로 여행 급증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체크카드’
환전·해외결제 집중 혜택 탑재
농협카드 ‘지금 휴가중 카드’
호텔스닷컴과 숙소 할인 혜택

코로나19이후다시 하늘길이 열리면
서 해외여행 맞춤 카드에 소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농협카드와 하나카드는 해외 항공편
재개에 발맞춰 해외여행 특화 상품을
출시했다. 해외 카드 승인 금액 또한 지
속 상승하고 있어 여행 특화 상품 확대
가 적절한 선택이었다는 분석이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농협·하나카
드가 여행 특화 상품을 출시하며 관광
시장 공략에 나섰다. 지난달 농협카드는
호텔스닷컴과의 협업을 통해 ‘지금
(zgm).휴가중 카드’를 출시했다. 엔데
믹으로 여행업이 활황을 보일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

하나카드는 지난해 7월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인천공항이 24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플레이트.

시간 운영을 재개한 6월 이후 한 달 만
에 선보였다. 해외여행객 수요에 발맞
춰 환전과 해외결제에 집중한 혜택을
탑재하며 경쟁력 제고에 나선 것이다.

농협카드의 ‘지금 휴가중 카드’는 국
내 가맹점에서 실적 조건 없이 무제한
적립 혜택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사
용 금액의 0.5%를 NH포인트로 적립한
다. 또한 항공권 및 면세점 이용 시 사용
금액의 0.5%를 매달 1만 NH포인트까
지 제공한다.

이외에도 농협카드 스마트앱 내 호텔
스닷컴 전용 페이지를 활용해 숙소를

예약하면 매달 최대 4번까지 한도 제한
없이 20%를 즉시 할인한다.

농협카드는 지금 휴가중 카드를 중
심으로 혜택을 강화해 ‘막인효과’를 노
리는 모습이다. 지난달 지금 휴가중 카
드 사용자 대상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일본 여행객을 위한 맞춤 할인 행사를
단행했다.

농협카드 관계자는 “현재 호텔스닷컴
코리아와의 추가 공동 마케팅을 검토
중이다. 이달 내로 대고객 마케팅을 실
시할 예정이다”라고 귀띔했다.

하나카드의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는



농협카드 ‘지금 휴가중’ 플레이트.

해외결제와 환전과 초점을 맞췄다. 외
환 업무에 강점을 가진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인 만큼 관련 특기를 살렸다는
설명이다.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는 해외 가맹점
결제 시 건당 0.5달러의 서비스수수료
와 국제브랜드수수료(결제금액 1%)를
전액 면제한다. 아울러 해외 현금인출
기(ATM)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수수
료도 무료로 제공한다.

하나머니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현금
충전이 가능하다. 환전 수수료도 없어
스마트폰을 활용해 환율이 떨어졌을 때

를 노려 사전에 환전하면 여행 기간 중
무료로 인출해 사용 가능해 실효성이
높다.

트래블로그는 당초 미(美)달러, 엔,
유로, 파운드 등 4종으로 서비스를 출시
했다. 그러나 출시 6개월만에 50만명의
가입자와 누적 환전액 1000억원을 돌파
하면서 지난달 캐나다 달러, 싱가포르
달러, 호주 달러, 위안화 등 4개 통화를
추가해 총 8개 국가에서 활용 가능하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카
드 승인실적 중 운수업 금액은 1조3900
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7200억
원) 대비 93% 증가했다. 이어 한국은행
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카드사용액은 145억4000만달러로 1년
사이 19% 가까이 상승했다. 해외여행
맞춤 상품 출시가 효과 역할을 제대로
한 셈이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여행자보험 등
해외여행 관련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
다”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강달러 여파... 외환보유액 47억만 달러 ↓

2월기준, 4개월 만에 감소세 전환
한 달 새 환율 100원 가까이 올라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약 47억달러
줄면서 4개월만에 감소전환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우려에달러
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유로화 등 기타
통화의 외화 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줄
어든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2월말 기준 외환보유액
은 4252억9000만달러로 전월 말
(4299억7000만달러)보다 46억8000만달
러 감소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8·9·10월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11월 4개월 만에 반
등했다.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
다 지난달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은 관계자는 “기타통화 외화자산
의 미국 달러 환산액, 금융기관 외화에
수급 등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
했다.

실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
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지난달 2.
3% 상승했다. 이 기간 주요 통화의 달
러화 대비 변동률은 유로화 (-2.2%),

파운드화(-2.3%), 엔화(-4.2%), 호주
달러화 (-4.4%)를 기록했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보면 국제·
회사채 등 유가증권(3744억9000만달
러)이 한 달 전보다 30억7000만달러 늘
었다. 금은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000만달러를 유지했다.

반면 예치금은 74억2000만달러 줄어
든 267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특별
인출권(SDR)도 2억5000만달러 감소한
148억달러로 집계됐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 권리인
‘IMF 포지션’(44억4000만달러)은 9000
만달러 줄었다.

외환보유액은 한국 경제의 외화비상
금 격이다. 대외 지급결제와 위기 상황
에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외환
보유액이 줄면 환율이 급등락할 때 관
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환율은 시
장에서 결정되지만 시장 안정을 위협할
정도로 급등락하면 외환당국이 외환보
유액을 활용해 달러를 사거나 팔아 시
장 안정 조치를 취한다.

문제는 최근 환율 변동성이 급격히
커졌다는 점이다. 지난 연말부터 연초

까지 200원가량 내린 원·달러 환율은 지
난달 이후 한 달 새 100원 가까이 급등
했다.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면 외환보유액
이 환율 방어에 쓰일 수도 있고 기타통
화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도 줄기 때
문에 외환보유액은 계속 감소할 가능성
이 커진다. 다만 한은은 현재 외환보유
액 수준과 관련해 걱정할 단계는 아니
라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순대외금융자산(대
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이 충분하
고 단기외채비율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
다. 실제 한국의 대외지급 능력을 반영
하는 순대외금융자산은 지난해 말 기
준 7466억달러로 연말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한편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1월
말 기준(4300억달러)으로 세계 9위로 나
타났다. 중국이 3조1845억달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1조2502억달러), 스
위스(9301억달러), 러시아(5970억달
러), 인도(5744억달러), 대만(5571억달
러), 사우디아라비아(4572억달러), 홍콩
(4365억달러) 순이었다.

/나유리 기자

1년 이내 병력 있어도 가입 가능 창업 도약기 스타트업 성장 지원

보험 브리핑

◆ 유병력자 가입문턱 낮추고 보장
범위 강화

KB손해보험은 1년 이내 병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KB 3.0.5 슬기
로운 간편건강보험’을 이달 출시했
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진단비, 수술비, 치
료비 등 전반적인 위험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 가능하다. 1년 이내 입원
·수술 치료 이력이 있다면 가입의
필요성을 더한다.

‘3·0·5’라고 불리는 고지 항목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추가검사 의사 소견 여부 ▲최
근 입원 또는 수술 이력 무관 ▲5년
내 8대 질병(암, 백혈병, 협심증, 심
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
졸중증, 에이즈) 진단, 입원, 수술 여
부에 관한 고지만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10~30년 5년 단위 만기 상품으로
만 구성했다. 또한 3대 질병(암·뇌혈
관질환·심장질환)에 한정해 진단·수
술·입원일당을 보장했던 이전 상품
과 달리 건강보험 전체 담보를 탑재
해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분야 심사

DB손해보험은 ‘2023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민간검증 기업추천에
대기업 수요기업으로 참여한다고 6
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이번
민간검증 기업추천은 ‘초격차 스타
트업 1000+’를 주제로 과거 대·중견
기업과의 협업 이력이 있는 우수 창
업기업을 발굴해 협업 추진을 보조



KB손해보험 ‘KB 305 슬기로운 간편건강
보험’ 출시.

/KB손해보험

지원한다. 3월 중순까지 추천을 완
료하고 협업할 예정이다. 특히 본 사
업에 선정된 기업들은 사업화 자금
을 최대 6억원까지 지원 받는다. 아
울러 정책자금, 기술보증, 수출바우
처 등을 우대 지원 받는다.

◆ ‘든든’한 지원 통해 유망기업 지
원

교보생명은 ‘2023년 창업도약패
키지’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선정
됐다고 6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
이 주관하는 창업도약패키지는 창
업 3~7년 후 ‘죽음의 계곡(데스밸
리)’을 지나는 기업들이 시장에 안정
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정부지원
사업이다.

창업도약패키지 프로그램타이를
역시 ‘든든’으로 정했다. 선정 기업
과 든든한 파트너십과 지원을 약속
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교보생명은 보험 및 금융솔루션,
헬스케어, 문화콘텐츠, 인공지능 데
이터 분석 등 4개 분야에서 협업 가
능성이 높은 15개곳 내외를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한 창업 기업은 평균 1억
2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정산 기자

전략산업분야 등 취약 中企에 자금 지원

신한은행, 60억 특별출연
금융지원 전용상품도 출시

신한은행은 취약 중소기업 금융 지원
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에 특별출연 50억
원과 보증료 지원금 10억원, 총 60억원
을 출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출연은 ▲정부 선정 12대
국가전략기술 산업 분야 중소기업 특별

출연 40억원 ▲방위산업 분야 중소기업
특별출연 10억원 ▲보증료 지원금 10억
원으로 구성된다.

신한은행은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해
당 산업의 취약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정부선정 12대 국가전략기술 산업이
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
첨단·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
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
단로봇·제조 ▲양자산업으로 파급효과
가 크고 국가차원의 핵심이익을 좌우하
는 기술군이다.

기술보증기금은 특별출연 한 재원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대출 지원을 위한
보증서를 발급하고 신한은행은 이 보증
서를 담보로 총 2000억원 규모의 운전
자금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이번 금
융 지원을 위해 전용 대출상품도 별도
로 출시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최태원, 유럽서 ‘경제협력·ESG·부산엑스포’ 광폭행보

〈SK회장〉

대통령 특사로 유럽 3개국 방문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 호소
덴마크 에너지 기업과 연쇄 회동
포르투갈·스페인 경제협력 확대

최태원 SK회장이 유럽을 상대로 2030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6일 SK그룹 측은 대통령 특사로 유럽 3개국(스페인·덴마크·포르투갈)을 방문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각국 주요 기업인과 잇달아 만나 사업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글로벌 경영 행보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5일까지 특사 자격으로 3개국 총리 등 정부 관계자를 만나 2030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SK그룹 회장으로서 각국의 에너지 관련 기업들과 연쇄 회동을 갖는 등 경제협력 확대의 첨병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이번 출장이 신재생에너지 강국 방문인 점을 고려, 최 회장의 비즈니스 미팅도 덴마크의 베스타스, 포르투갈의 갈프 등 각국 에너지 분야 주요 기업과의 회동에 중점을 뒀다.

◆ 덴마크 친환경 에너지 기업과 연쇄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 오른쪽)이 지난 2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풍력터빈 제조 세계 1위 기업인 베스타스(Vestas)의 헨릭 앤더슨(Henrik Andersen) CEO(사진 왼쪽)를 만나 사업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SK

회동

우선 최태원 회장은 지난 2일(현지시간) 풍력터빈 제조 세계 1위 기업인 덴마크 베스타스의 헨릭 앤더슨 CEO를 만났다.

최 회장은 특히 해상풍력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베스타스와의 협력 확대를 언급하며, 한국을 허브(Hub)로 양사가 함께 베트남 등 동남아로 진출하는 한편, 해상풍력 뿐만 아니라 수전

해기술을 통한 그린수소 개발 및 판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트너십 강화를 제안했다.

헨릭 앤더슨 CEO는 “급성장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사업 허브로서 한국이 최적의 국가”라며, “SK와의 해상풍력 분야 협력을 진전시키는 한편 향후 그린수소 개발 및 친환경 전기(Green Electricity) 기반의 전기차 충전 시설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도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 회장은 같은 날 세계 최대 그린에너지 투자운용사 CIP의 야콥 폴슨 CEO와도 만나 해상풍력,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수소, 소형모듈원전(SMR) 등 친환경 에너지 전반에 걸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최 회장은 CIP 측에 해상풍력을 넘어, 이를 통한 안정적인 수소 생산 및 해외 수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덴마크에서의 비즈니스 미팅에 대해 SK 관계자는 “한국과 덴마크 정부간 구축된 ‘녹색성장동맹’의 기반 위에 기업 차원의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해상풍력·수소·ESS·배터리 등 그린 밸류체인 전반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양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도 중형무진 최태원 회장은 지난 3일(현지시간) 포르투갈 에너지 종합기업 갈프의 필리페 시우바 CEO와 면담을 가졌다.

최 회장은 포르투갈 최대의 석유 및 가스 기업인 갈프사가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사업을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 SK 그룹과 유사하다고 평가하며, 배터리·수소·SMR 등 신재생에너지 및 순환경제 전반에서 협력 기회를 발굴해 가져

고 제안했다.

필리페 시우바 CEO도 갈프사가 SK와 유사한 사업 플랫폼 및 포트폴리오 전환 전략을 갖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양사는 향후 SK와 해상풍력, 리튬정제, 바이오 연료 개발, EV 충전시설 등으로 협력 범위를 지속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SK 관계자는 “한국과 포르투갈의 최대 에너지 기업간 최고위급 면담이 이뤄짐으로써 양국의 에너지 전환과 녹색성장 비전을 민간 차원에서 선도하며 경제협력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스페인 최대 에너지기업인 렘솔과 SK그룹간의 오랜 신뢰 구축의 결과 성공적인 사업 성과를 내고 있는 고급순환유 생산 합작법인 일복(ILBOC)의 사례를 소개하며, 양국간 적극적인 상호투자 및 인력교류 확대를 제안했다.

SK 관계자는 “기업인이 특사 역할을 맡게 되어 엑스포 유치 지원을 계기로 유럽과의 구체적인 경제협력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향후에도 ESG 등을 매개로 글로벌 시장을 지속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저시력자 위한 ‘릴루미노 웨어러블 기기’ 시범 보급

삼성전자

장애인복지관 등에 30여대 무상제공
장애 정보·유형 따라 개별 맞춤 설정

삼성전자 기술력이 저시력자에 빛을 되돌려준다.

삼성전자는 최근 ‘릴루미노’ 기술로 만든 웨어러블 기기 30여대를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과 송승환 배우 겸 감독에 무상 제공했다고 6일 밝혔다.

릴루미노는 ‘빛을 다시 돌려주다’는 뜻을 가진 라틴어다. 저시력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각 보조 솔루션으로, 스마트폰 영상처리 소프트웨어 릴루미노 앱과 안경 타입 웨어러블 기기 글래스로 구성된다.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를 앱에서 저시력 장애인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 글래스 디스플레이로 실시간으로 보여 주는 방식이다.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글래스와 USB



삼성전자가 만든 릴루미노 웨어러블 기기

케이블로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 중 90% 수준인 잔존 시력이 남아있는 저시력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스마트폰 화면을 보지 않고도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촉지감각’을 활용한 UX도 적용했다. 글래스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개선된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장애 정도나 유형에 따라 개별 맞춤 설정도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삼성서울병원과 협력을 통해 릴루미노 임상시험을 실시한 결과, 사용자 안전이 검증되었고 별도 시각장애인 사용자 평가를 통해 기존 상용제품 대비 성능·피로도·사용성도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했다.

송승환 감독은 “어렵듯이 형체만 보이던 사람과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어서 만족스럽다”며, “연기를 하면서 상대 배우를 잘 알아보기 힘든 어려움이 있었는데, 리허설 등의 과정에서 릴루미노를 사용하면 배우의 얼굴과 표정을 느낄 수 있어 연기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의 정옥동 관장은 “시각장애인들이 릴루미노를 착용하자 또렷하게 글씨를 보던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다”면서 “선명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번 보급 사업을 운영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오랜 연구를 거듭해 릴루미노를 개발했다. 2016년 사내 벤처 육성 프로그램 C랩 과제로 채택해 2017년 기어 VR을 활용한 앱을 개발, 2018년 처음 콘셉트 기기를 개발했다. 이후 개선을 통해 착용감과 피로도 등 편의성을 높여왔다.

릴루미노 과제를 시작한 조정훈 연구원은 “시각장애인들 92%가 여가활동 1 순위로 TV 시청을 꼽을 정도로 TV 의존도가 높지만, 실제 시청 접근은 어렵다는 조사결과를 보고 연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릴루미노 연구는 현재 삼성리서치에서 ▲안전성과 사용성 ▲품질 확보를 위한 글래스의 전파 인증 ▲임상시험 ▲SW 검증 ▲신뢰성 시험과 사용자 평가 등 끊임 없는 기술 고도화가 진행 중이다. /김재용기자 juk@

한국수입자동차협회

2월 수입차 2.1만대 BMW 6381대 ‘1위’

수입차 시장이 큰폭으로 성장했다. 독3사가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일본 브랜드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2월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대수가 2만 1622대였다고 6일 밝혔다.

전년 동기(1만9454대)보다 11.1%, 전달(1만6222대)보다도 33.3%나 증가한 수치다. 누적으로도 3만7844대로 전년 동기(3만6815대)보다 2.8% 많아 분명한 성장세를 확인했다.

브랜드별로는 BMW가 6381대로 다시 1위를 되찾았다. 메르세데스-벤츠도 5519대, 아우디가 2200대로 ‘독3사’ 강세는 이어졌다.

일본 브랜드도 회복세를 본격화했다. 렉서스가 1344대, 토요타가 695대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각각 183.5%, 149.1% 늘었다. 국가별로는 2200대, 전년(1009대)보다 2배 이상이 됐다. 점유율도 10%를 넘어섰다.

포르쉐는 1000대를 돌파하며 슈퍼카 인기를 증명했다. 2월 판매량이 1123대로 전년(777대)과 전달(726대) 대비 50% 안팎 성장률을 보였다. GM의 브랜드 지엠씨도 새로 수입차 시장에 합류했다.

연료별로는 전기차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1272대로 전년보다 153.9% 많았다. 하이브리드도 31.4% 성장했다. 반면 디젤이 37% 줄었고,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도 51.8% 감소했다.

/김재용 기자

제주항공-플라나, ‘AAM 연구’ 업무협약

안정적 비즈니스 모델 발굴 협력

제주항공이 국내 AAM 기체 제작사인 플라나(PLANA)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항공과 플라나는 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제주항공 서울지사서 양 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선진 항공 모빌리티(AAM, Advanced Air Mobility) 분야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업

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항공과 플라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 과정인 연구실증을 협력을 통해 기체안전성, 통합운용성, 소음측정 등을 점검하게 된다. 또한 도심항공모빌리티(UAM)와 지역항공모빌리티(RAM)를 포괄하는 개념인 선진 항공 모빌리티(AAM) 분야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산업 연구과제 공

동수행, 산업 종사자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는 “항공 운송사업자로서 항공 경영의 노하우와 지식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것”이라며 “특히 하이브리드 기반의 AAM을 개발하고 있는 플라나와의 업무 협약은 제주항공이 UAM을 넘어 AAM까지 사업 모델을 확장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제주항공은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에 ▲단일분야 연구실증과 ▲컨소시엄

통합실증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한다. 단일분야 연구실증에서는 플라나와 협업을 통해 운항자 시스템과 운영 절차를 연구하고, 컨소시엄 통합실증에서는 대우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축해 UAM 이해관계자 간 통합 운용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플라나는 국내 유일 하이브리드 기반 수직이착륙 전기 항공기 개발 기업으로 2028년 상용화 목표로 조종사와 승객을 최대 7명까지 수용하고 500km 이상 운항할 수 있는 기체를 개발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KT, 차기 대표 최종후보에 ‘영업·마케팅통’ 임헌문 유력

예정대로 오늘 최종후보 결정
전·현임직원 구성에 반발 거세
주총서 국민연금 반대 땀 원점
57% 지분 소액주주 표결 관심

오는 7일 발표되는 KT 대표의 최종 후보가 누가 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임헌문 전 사장이 KT 대표에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

임 전 사장은 KT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KT에서 30년을 근무한 ‘KT 맨’으로 구현모 대표가 36년을 KT에서 근무한 것과 유사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또 역시 신입사원으로 KT에 입사한 박윤영 전 사장도 KT 대표 후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윤경림 KT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사장)과 신수정 KT 엔터프라이즈 부문장(부사장)은 국민의힘으로부터 ‘구현모 대표가 후보로 세운 인물’이라며 강력하게 비난을 받아 KT 최종 대표로 선정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KT 대표를 전현직 임원 4명만 대표 후보로 선정한 데 대해 강력



KT 이사회가 공개한 4인의 KT 대표이사 후보들. 왼쪽부터 박윤영(전 KT 기업부문장, 사장), 신수정(KT Enterprise부문장, 부사장), 윤경림(KT 그룹Transformation부문장, 사장), 임헌문(전 KT Mass총괄, 사장).

하게 반발하고 나서 대표 재공모를 진행하거나, 대표 후보 일괄 사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KT측은 “예정대로 4인 후보를 대상으로 대표이사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며 “재공모에 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반대에 부딪혀 대표이사 선임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4월을 ‘대표 공백’ 상태로 보내야 하며 인사와 조직개편도 단행하지 못한 KT가 비상상황에 놓이게 된다.

유력한 대표 후보로 꼽히는 임헌문 전 KT 매스(MASS) 총괄 사장은 4인 후보 중 최연장자이다. 2019년 차기 최고경영자(CEO) 선발 과정에서

최종 9인에 들었으며, 유력 후보로 꼽혔다.

황창규 전 KT 회장이 영업 및 마케팅을 총괄하는 매스 총괄 사장으로 그를 임명했을 정도로 통신업계에서 영업 및 마케팅 전문가로 꼽힌다. 1987년 KT에 입사한 후 KT 마케팅전략본부 부장, KTF 마케팅연구실장, 단말기전략실장, 마케팅전략실장을 지낸 바 있다. 2013년에서 2014년까지 충남대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했지만 ‘황 전 회장의 삼고초려’로 다시 KT에 복귀해 부사장 자리에 올랐다.

임 전 사장은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로 선정된 인물로 평소 임직원들 중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다. 다만, 미래의

기술에서는 다소 거리가 멀다는 평가를 받는다. 임 전 사장은 4인의 후보 중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인물로 꼽히고 있다.

박윤영 전 사장은 1992년 KT 네트워크기술연구직에 입사했으며 SK로 이직하기도 했지만 다시 KT로 돌아온 인물이다. 2020년 사장직에 오르기 전까지 KT 컨버전스 연구소장(상무), 미래사업개발그룹장(전무), 기업사업컨설팅본부장, 기업사업부문장 및 글로벌사업부문장(부사장)을 거쳤다. 그는 박 전 사장과는 달리 미래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MZ 세대에 인기다. 하지만 B2B(기업간) 거래에 경력이 치중된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윤경림 사장은 대통령실 및 여권에서 그를 비판하기 전까지 KT 대표의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 윤 사장은 CJ와 현대차에서 근무한 인물로 통신업체 여러 분야에서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신수정 부사장도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됐지만 이번에 구현모 대표가 후보로 세운 인물 중 2번째로 평가되면서 대표 후보로 최종적으로 오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KT는 7일 예정대로 대표이사 최종 후보 발표를 진행한 후 주총에서 이 안건을 올리게 된다. 주총에서 KT 대표이사 표 대결을 진행한다고 해도 여권의 강한 반대에 따라 국민연금이 이에 반할 가능성이 크다. 또 국민연금이 1대 주주로 있는 KT의 2대 주주 현대자동차와 국민연금이 2대 주주로 있는 3대 주주인 신한은행도 같이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KT 지분의 대량 매각에 나서면서 지난 1월 11일 지분율이 9.95%에서 2월 28일 8.53%로 줄면서 소액주주들의 비판이 거세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57.3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들도 표결에 영향을 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네오피, 글로벌 도약 위해 오지스와 협력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 파트너십
상호 구축 서비스 교류·지원나서

블록체인 전문기업 네오피는 블록체인 기술기업 오지스와 글로벌 도약 및 생태계 확장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은 최고 블록체인 기술 기업 간의 만남으로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네오피와 오지스는 글로벌 도약을 위한 강력한 공동 협력을 추진하며 상호 구축 중인 생태계를 교류하고 확장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디파이(DeFi, 탈중앙 금융), 지갑 등 양사의 블록체인 기술 기반 서비스를 중심으로 우선 협력을 진행한다.

오늘 오후 12시, 최근 오지스가 톤(The Open Network) 메인넷에 성공적으

로 출시한 AMM-DEX(자동화된 시장 메이커-탈중앙거래소) 메가톤 파이낸스에서 네오피 토큰(NPT)과 톤 코인(TON)의 유동성 풀(NPT-TON)이 형성된다. 풀 생성 직후인 오후 1시부터는 톤 코인 1000개를 활용한 에어드랍 이벤트도 진행한다. 에어드랍은 톤 기반의 지갑인 톤 월렛, 톤 허브, 톤 키퍼에 최소 100불 상당의 폴리곤 기반 네오피 토큰을 전송한 선착순 500명에게 제공된다.

양사는 블록체인 오픈플랫폼 네오피, 지갑, 폴리곤 기반 DEX 메시스왓 등 자사 핵심 서비스에서도 협업을 이어나가며 생태계 확장을 도모할 계획. 추후 네오피 지갑과 메시스왓 및 메가톤 파이낸스를 연동하고, 네오피에서도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다.

네오피는 동명의 블록체인 오픈플랫

폼 네오피를 기반으로 게임, 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NFT), 서비스 등으로 생태계를 연결 및 확장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네오피가 영위하는 블록체인 비즈니스와 관련해 정부 ‘경제사절단’에 동행하는 등 현재 아랍에미레이트(UAE)를 거점으로 한 글로벌 사업을 본격 준비 중이다.

오지스는 폴스택블록체인 기술기업으로, 크로스체인 기술과 글로벌 규모의 디파이 개발 경험을 기반으로 국내외 웹3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김지환 네오피 대표는 “최고의 블록체인 기업들이 만난 만큼 양사의 공동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유의미한 결과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LG U+ ‘U+’ 동영상 리뷰 서비스 론칭

LG유플러스는 리뷰 마케팅 솔루션 기업 인텐트코퍼레이션과 제휴를 맺고 ‘U+’

LG유플러스는 리뷰 마케팅 솔루션 기업 인텐트코퍼레이션과 제휴를 맺고 ‘U+’

LG유플러스는 리뷰 마케팅 솔루션 기업 인텐트코퍼레이션과 제휴를 맺고 ‘U+’

애플페이 가능한 통합단말기 보급 확대

NHN KCP, 글로벌 브랜드 인증
중소가맹점 합리적 가격에 보급

NHN KCP는 애플페이 서비스 국내 도입 공식화에 따라 최근 출시된 키오스크와 통합 단말기가 주목 받고 있다.

지난달 3일 금융위원회는 애플페이 서비스 제공과 관련 필요 절차 등의 확인 결과를 발표 했으며, 신용카드사 들은 필요한 관련 절차 등을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애플페이가 도입될 수 있다 해도 사용할 수 있는 NFC단말기 보급이 문제다. 현재 애플페이 사용 가능 단말기는 10~20만원 가량의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다. 대형 프랜차이즈 중심으로 보급됐고 설치율은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300만개 중 10%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애플페이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NFC단말기가 필요하며, 영세 자영업자가 지 도입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애플페이 서비스가 자리 잡는데 방해 요소로 예상하고 있다.

NHN KCP는 NFC단말기의 보급을 위해 글로벌 브랜드 인증을 완료하고, 애플페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와 통합단말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보급하고 있다.

영세·중소가맹점(연 매출 30억원 이하)에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과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으로 NFC/QR 통합단말기를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 중이며, 약 2만대의 단말기가 설치됐다.

/최빛나 기자

“김해공항 입국 日승객 절반이상 에어부산 이용”

에어부산, 지역관광 회복 견인
4개월간 265억 경제유발 효과

최근 4개월간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전체 일본 국적 관광객의 절반 이상이 에어부산 이용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입국 관광통계 및 에어부산 자체 통계에 따르면 일본 여행이 본격적으로 재개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일본 국적 관광객은 3만

4670명으로 김해공항 입국 외국인 관광객 중 가장 높은 비율(35%)을 차지했다.

이중 절반이상(51%)인 1만7641명이 에어부산 항공편으로 입국한 것으로 나타나 에어부산이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지역 관광 회복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 전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서 부산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이 약 15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에어부산

이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4개월간 265억원에 달하는 지역 경제 유발 효과를 창출한 셈이다.

노선별로는 후쿠오카 노선이 가장 많은 8342명의 일본인 탑승객을 기록하였으며, 그 뒤로 오사카(7280명), 도쿄(1893명) 노선 순으로 일본인 탑승객이 많았다.

에어부산은 일본 노선뿐 아니라 대만 노선 등 국제선 운항 확대에 맞춰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포켓몬 공식 라이선스 신제품 출시!



포켓몬 맥세이프 보조배터리

강력한 맥세이프 자성! 슬림하고! 가볍다!
최대 20W 유·무선 고속 충전!



포켓몬 무선 충전 마우스패드

귀여운 피카츄 얼굴을 그대로 담은 마우스패드로
나만의 PC공간을 밝고 귀엽게 꾸며보세요!



상품문의 | 게임피아(주) 공식 온라인몰 : www.sofrano.com & TEL : 031-447-8858

※해당 제품은 한국 내 포켓몬 공식 라이선스 상품입니다.※

본 제품은 한국 내 독점적 저작권 관리자인 (주)포켓몬코리아와의 정식 계약에 의해 생산되므로 무단 복제 시 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국 내에서만 판매 가능.

©Nintendo, Creatures, GAME FREAK, TV Tokyo, ShoPro, JR Kikaku. ©Pokémon.
포켓몬스터, 포켓몬, Pokémon은 Nintendo의 상표입니다.

GamePia

증권사, ISA 채권투자 스타트… 절세 효과에 ‘관심 집중’

미래에셋증권 등 업계, 서비스 돌입
이자소득세 등 최대 400만원 비과세
상품증정·주식쿠폰 등 이벤트 마련

그동안 불가능했던 중개형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채권 매매가 올해 법 개정으로 가능해지면서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다. 채권투자에 대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개형 ISA계좌에 대해 채권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등이 중개형 ISA를 통한 채권 판매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관련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ISA는 주식, 펀드, 주식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



여의도 전경.

/뉴시스

품이다. 기존에는 상장주식, 펀드, 주식연계증권(ELS)과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대표적인 확정금리형 상품인 국공채와 회사채 투자가 가능해졌다.

ISA계좌를 통한 채권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투자자들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일반계좌에서 채권에 투자할 경우 이자에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 되지만, 중개형 ISA에서 채권 투자를 하면 배당과 이자소득세 2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서민형 기준으로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일부터 ISA

채권 매매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번 서비스는장외채권, 장내채권뿐만 아니라 전자단기사채(전단채), 주식관련사채인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등도 거래 가능하다.

삼성증권은 6일 ISA 채권매매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서비스 오픈 기념으로 상품을 증정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KB증권은 지난달 28일 중개형 ISA 가입자를 대상으로 채권 매매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고객유치차원에서 5월 31일까지 ‘바이 코리아 바이 본드 위드 ISA(Buy Korea Buy Bond with ISA)’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기간에 가입하면 중개형 ISA계좌에서 원화장외채권을 매수한 금액에 따라 중개형 ISA 전용 주식 쿠폰 최대 20만원권을 증정하고, 중개형 ISA계좌로 입금 후 8월 말일까지 잔고 유지시 순입금 금액에 따라 최대 20만원 쿠폰을 추가로 지급한다.

NH투자증권도 지난 2일 ISA를 활용한 채권 매매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이달 한 달간 ISA 계좌 채권 매매 고객을 대상으로 특판 환매조건부채권(RP) 이벤트를 진행한다. 채권 매수 금액만큼 연 5%(세전) 91일물 특판 RP가입 기회를 제공하며, 1인당 최대 1000만원 한도로 가입 가능하다.

지난해 주식 시장 부진으로 개인투자자의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올해 2월까지 장외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5조6621억원 순매수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순매수한 금액(7945억원)보다 7배나 큰 규모다.

전동현 NH투자증권 상품기획부 이사는 “고금리시대에 채권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개형 ISA에서 채권 매매 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신용융자 이자율 내렸더니… ‘빚투’ 늘었다

금투협, 신용융자 잔고 17.8조 집계
작년 초 보다 10.67%↑, 올 최고수준

금융당국의 ‘이자 장사’ 비판에 증권사들이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인하하자 ‘빚투(빚내서 투자)’가 늘어나는 모습이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의 신용융자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증시 변동성에 따른 유익이 필요하다.

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신용거래 융자 잔고(코스피+코스닥)는 17조812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 말(16조944억원)과 비교했을 때 10.67% 증가한 수치로,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이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급증하고 있다. 코스닥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올해에만 1조489억원 증가했다. 코스피 신용거래 융자 잔고

가 이 기간 2283억원 늘어난 점을 감안했을 때 4배 이상 규모가 늘었다.

코스피에 비해 코스닥 지수가 더 빠르게 단기 급등했기 때문이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4.07포인트(1.75%) 상승한 816.49에 장을 마쳤다. 지난해 8월 31일(807.04) 이후 6개월 만에 800선을 회복했다. 또 최근 증권사들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인하 추세도 빚투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당국의 이자 장사 압박에 이어 최대 10%대까지 올렸던 이자율을 인하하면서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한달간 총 9곳의 증권사가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실제로 신한투자증권은 최단 기간인 7일 이내의 경우 이자율을 종전 연 5.05%에서 연 3.90%로, 최장 기간인 90일 초과와 경우 기존

연 10.0%에서 연 8.90%로 낮췄다. 키움증권은 신용융자 사용 기간별 이자율을 최대 2.1%포인트(p) 인하했으며, 미래에셋증권,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내렸다.

단, 미국 경제지표 호조 등에 따른 추가 금리 인상 우려 등 증시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 미국 고용·물가·소비 지표가 모두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오는 21~22일 열리는 FOMC 정례회의에서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언급할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연준의 매파적 정책과 달리 강세 등 악재로 변동성이 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임태택 대표이사(첫째 줄 왼쪽 두 번째) 등 한양증권 임직원들이 지난달 8일 진행된 제1회 치유 공정 행사에서 재즈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한양증권

한양증권, 임직원 ‘조직 셀’ 실험 나서

‘CEO와의 한 끼 식사’ 프로그램 진행

한양증권이 최근 10명의 임직원을 하나의 셀로 구성하는 이색적인 조직실험을 단행했다고 6일 밝혔다.

총 500명의 임직원을 50개의 셀(Cell)로 각각 배치해 부서와 직급 등 인위적 조정 없이 무작위로 구성했다. 이를 통해 같은 셀에 속한 임직원들은 하나의 조직공동체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조직개편 실험의 아이디어는 임태택 한양증권 대표이사가 제시했다. 임 대표는 ‘바다 전체를 끓이려 하지 말

라’는 맥킨지의 격언에서 조직실험의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전했다. 바닷물 전체를 끓이는 건 불가능하지만, 작은 솥에 조금씩 나눠 끓이는 것은 쉽다는 뜻으로, 10명 단위의 그룹을 통해 응집력과 소속감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10명 단위의 ‘소셀셀’의 첫 프로그램은 CEO와의 한 끼 식사다. 각 셀에서 별도의 플랜을 구성하여 CEO를 초청하는 방식이다. 프로그램 이름은 ‘치유공정’으로 명명해, ‘아궁이에 불을 때 한술밥을 먹는다’는 뜻인 취유공정(炊猶共鼎)에 치유(심력회복)의 의미를 더했다. /이영성 기자 ysl@

AI 이을 ‘양자기술’… SKT와 협업 관련기술 개발



케이씨에스·우리넷·드림시큐리티

양자컴퓨터 개발, AI 진보에 큰 역할
암호칩·암호키분배기 등 개발 성공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은 인공지능(AI) 테마를 이을 다음 주자로 ‘양자기술’을 꼽으며 케이씨에스와 우리넷, 드림시큐리티에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최성환 리서치알음 대표이사는 “구글, 아이비엠(IBM),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빅테크 기업들은 양자컴퓨터 개발이 AI 기술 진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양자기술에 대한 탐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양자정보기술(QIT, Quantum Info

mation Technology)은 물질의 최소단위인 양자가 갖는 물리적 특징인 중첩, 얽힘, 불확정성 등을 활용하는 분야다. 이를 이용해 양자컴퓨터, 양자암호통신, 양자센서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획기적인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리서치알음에 따르면 케이씨에스와 우리넷, 드림시큐리티는 SK텔레콤과 협업해 양자암호 관련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케이씨에스는 지난 2월 26일 SK텔레콤과 공동 개발에 성공한 ‘양자암호칩(QKEV7)’을 출시했다. 해당양자암호칩은 양자난수생성기(QRNG)와 암호칩(KEV7)을 합친 차세대 보안칩으로 사물인터넷 환경의 커넥티드 기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아파트 월패드

해킹 방지 및 사무사물인터넷(IoT) 기기에 탑재해 조기 상용화할 방침을 밝혀 수혜가 기대된다.

우리넷은 SK텔레콤과 양자암호화 관련 협력을 통해 양자암호키분배기(QKD) 방식의 전송암호모듈을 개발했으며, 디지털 뉴딜 양자암호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공공, 국방을 비롯해 민간으로 적용이 확대되고 있어 수혜가 예상된다.

드림시큐리티는 양자컴퓨팅 환경에 대응하는 포스트 양자 암호알고리즘(PQC)을 지난 2022년 SK텔레콤과 협업해 상용화에 성공했다.

최 대표는 “SKT와 협업 중인 양자암호 기술 감소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레퍼런스 확보로 시장 선점 수혜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이달 전국 아파트 1.8만여 가구 분양

수도권 물량 61%, 1만여 가구

이달 전국 아파트 청약시장에 1만 8000여 가구가 쏟아질 예정이다. 일부 물량은 미뤄질 수 있다. ‘1·3 부동산 대책’ 이후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분양가 상승 등으로 건설사들이 분양일정을 확정하지 못해서다.

6일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3월 전국 29곳에서 2만 3585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1만 7687가구로 지난달 물량

(1만 6539가구) 대비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수도권 일반분양 물량은 1만 781가구(60.95%)며, 지방은 6906가구(39.05%)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8103가구(11곳, 45.81%)로 가장 많고 부산 2384가구(2곳 13.48%), 인천 1539가구(3곳 8.70%) 등이다. 서울은 고덕 강일 3단지 사전청약을 포함해 총 3곳에서 1139가구(6.44%)가 분양된다.

/이규성 기자 peace@

‘일진’ 품은 롯데케미칼, 배터리 소재 ‘동박’ 사업 본격화

주총에 상호변경·이사 선임안 상정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로 교체
새 대표에 김연섭 본부장 유력

롯데케미칼이 배터리 소재 동박을 필두로 사업 다각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롯데케미칼은 일진머티리얼즈의 안정적인 인수를 추진했으며, 오는 14일 임시주총을 통해 일진머티리얼즈의 사명을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로 변경한다. 지난해 7584억원 규모의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3분기 연속 적자를 마주해야했던 롯데케미칼이 일진머티리얼즈 인수로 석유화학군의 회복을 노리는 모습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일진머티리얼즈는 오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의 건’을 올린다. 일진머티리얼즈의 허재명 의장, 양철식 대표, 정길수 부사장, 김기완 사외이사 등 일진머티리얼즈의 이사회 이사진 전원이 3월 중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롯데케미칼은 사내이사 후보로 김연섭 롯데그룹 화학군HQ ESG경영본부 본부장을 맡아 안전 관리와 친환경 육성을 지휘했기에 친환경 소재



롯데케미칼 대전연구소

/롯데케미칼

구 롯데케미칼 전지소재사업단 전지소재부문장(전무) 등을 내세울 전망이다.

후보 중에서도 김 전무는 새 대표이사로 유력한 인물이다. 1990년 현대석유화학으로 입사한 김 전무는 2015~2016년 삼성SDI 케미칼 부문과 삼성정밀화학, 삼성BP화학 인수 실무를 담당하며 롯데케미칼 성장에 일조한 바 있다. 최근에는 롯데그룹 화학군HQ ESG경영본부 본부장을 맡아 안전 관리와 친환경 육성을 지휘했기에 친환경 소재

개발에도 역량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존 이사진들의 거취는 아직 불분명하나 연임 여부는 14일 열릴 주총에서는 논의되지 않는다.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케미칼과 일진머티리얼즈의 기업결합을 승인했고, 해외 승인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롯데케미칼의 일진머티리얼즈 인수는 최종 마무리된다.

롯데케미칼이 이렇게 일진머티리얼

즈 인수 작업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동박’을 중심으로 하는 배터리 소재 사업을 위해서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2조 7000억원을 투입해 배터리 소재 동박을 생산하는 일진머티리얼즈를 인수하기로 했다. 일진머티리얼즈는 세계 4위 동박 기업으로 알려졌다. 동박은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에 불과한 두께 10μm(마이크로미터·1μm는 100만분의 1m) 내외의 얇은 구리다.

동박은 배터리 4대 소재 중 하나인 리튬이온 전지의 ‘음극재’ 소재다. 동박은 지지체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이동 경로 역할을 하는 동시에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열을 외부로 방출하는 역할을 한다. 롯데케미칼 측은 “일진머티리얼즈가 글로벌 탑 티어(Top tier)의 기술을 갖추고 있다”며 “동박 시장도 치열해진다”는 전망이 있지만 미국과 유럽을 필두로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소재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업계에서는 동박 시장은 전기차 수요 증가로 사용량은 증가하는 한편, 진입

장벽이 높아 지속적 공급 부족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동박 산업은 연평균 40% 이상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로 꼽히기도 한다. 그만큼 동박 시장의 전망은 밝다는 이야기다.

롯데케미칼은 2027년까지 총 생산 C APA23만톤까지 확대하고, 2030년 매출 4조원 이상 목표로 전지박(동박) 사업의 중장기 성장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일진머티리얼즈는 약 6만 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동박 생산기지를 운영 중이다. 오는 2027년까지 말레이시아·스페인·미국에 생산시설을 확보해 총 23만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롯데케미칼은 경영 측면에서도 도약을 노리고 있다. 경영 일선에 크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신동빈 회장의 장남 신유열 씨가 롯데케미칼 상무를 맡아 경영에 나선다. 신 상무가 롯데케미칼에서 자신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회사의 실적을 올릴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대기업도 명품시장에 ‘도전장’… 차별화 시급

명품 버티컬 커머스 속속 론칭
가품 여부 보증으로는 부족해
11번가, 명품전문관 ‘우아렉스’
SSG닷컴, ‘SSG 개런티’ 서비스

온라인 명품 시장에 주요 대형 유통사들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각사는 고객을 록인(Lock-In) 하기 위한 차별화 서비스 및 상품 발굴의 숙제를 받았으나 상황은 어둡다. 가품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6일 <메트로 경제> 취재 결과, 주요 유통 대기업들이 명품 버티컬 커머스를 속속 론칭했다.

11번가는 이날 11번가 서비스 내 별도의 명품 전문관으로 ‘우아렉스(OOA h luxe)’를 열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11번가 측의 검증은 거친 입점업체 110곳이 입점했으며, 구매시 전상품에 대해 정품임을 보증하는 NFT 보증서를 발급한다.

박현수 11번가 CBO는 “온라인 명품 시장의 장점과 성장성이 이미 검증된 상황에서 11번가가 명품 버티컬에 도전하려면 절대적인 신뢰 기반의 서비스여야 한다는 대 원칙으로부터 ‘우아렉스’를 시작했다”며 “고객에게 강한 신뢰를 줄 수 있다면 앞으로 11번가의 ‘우아’ 브랜드가 선보일 다양한 명품 서비스와 라이프스타일 중심의 편집샵까지 명품 버티컬 영역에서 독보적인 서비스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통공룡 롯데쇼핑과 신세계는 진작부터 각기 ‘온앤더럭셔리’와 ‘SSG럭셔리’를 열고 명품 버티컬 커머스를 운영 중이다. 이들 기업들은 각기 운영 중인 면세점과 백화점 내 상품까지 함께 취급 중이다.



온라인 명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대형 유통 기업들도 출사표를 던졌다. 진품 보증을 위한 갖가지 대책을 내놓고 고객을 유인하고 있지만 고객들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 만큼 또다른 차별화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진은 모델들이 6일 론칭한 11번가의 명품 버티컬 커머신 ‘우아렉스’를 살펴보는 모습.

/11번가

롯데쇼핑은 지난해 9월 롯데온 내에 온앤더럭서리를 열었다. 롯데온은 1일부터 7일까지 ‘온앤더럭셔리 워크’를 열었는데, 단독으로 인기 상품 물량을 확보해 선보였다.

이수호 롯데온 명품MD는 “최근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명품 매출은 고공행진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고객들의 명품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할인 및 적립, 이벤트, 단독 물량 등의 다양한 혜택으로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자체 직수입과 함께 롯데면세점 재고 상품도 함께 취급한다. 입점 셀러에 대해서는 검증을 위해 담당자가 파트너사를 직접 방문해 유통경로 관련 서류와 재고 상품을 확인한 후 입점이 가능하고, 입점 이후에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SSG닷컴도 12일까지 패션 및 명품 카테고리 특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SSG닷컴은 신뢰도가 중요한 패션 및 명품 카테고리 특성을 고려해 업계 최고 수준의 ‘공식브랜드관’과 명품 디

지탈 보증서 ‘SSG 개런티’ 서비스, 무작위로 상품을 구매해 정품 여부를 감정하는 ‘미스터리 쇼퍼 제도’ 등을 운영하며 상품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더불어 최근 희소성 있는 명품 브랜드 내지는 하이엔드 브랜드 상품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W컨셉 상품을 연동해 ‘유어네임하얼’, ‘모한’, ‘아바몰리’, ‘르니나’, ‘해바이해킴’, ‘마론에디션’, ‘아르카익’의 재킷 및 원피스 등도 판매한다.

다만, 주요 유통 대기업들이 명품 전문관을 속속 론칭 중이지만, 고객들의 반응은 “차별성을 모르겠다”는 분위기다. 온라인 명품 시장의 최대 문제였던 가품 유통에 대한 확실한 보증에 대해서도 차별성 있는 서비스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당연한 문제라고 여긴다.

앞서 명품 버티컬 커머스와 셀러, 고객이 상품의 가품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다투는 사건까지 있었던 만큼 가품 피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 보상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포착된다. 감정부터 가품 피해보상안까지 앞서 시장에 먼저 진입한 버티컬 커머스가 문제를 겪고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한 상태여서 가품 여부를 따지는 다양한 서비스는 차별성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명품을 구입하는 데에 익숙한 장현경(35)씨는 “온라인 명품 구입의 최대 장점은 역시 가격과 희귀 빈티지 상품 판매 여부가 아닐까 한다”며 “백화점을 가지고 있는 롯데와 신세계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명품은 조금 더 신뢰성이 가기는 하지만 꼭 두 사이트에서 구매를 해야 할 이유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



삼성전자는 영국 런던 피카딜리 광장에 네오 QLED 8K TV를 소개하는 대형 옥외광고를 공개했다

삼성전자 네오 QLED 8K TV 영국 광장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피카딜리 광장에 대형 옥외광고를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네오 QLED 8K TV로 반려묘에 ‘와우’한 순간을 만들고 행복한 경험을 함께 나누는 여정을 담았다.

삼성전자는 MZ세대 취향을 반영하고 일상에서 즐기는 최고의 TV를 보여주기 위해 이번 영상을 기획했다. 삼성전자는 9일 국내를 시작으로 전세계에 2023년형 TV 라인업을 순차 출시할 예정이다.

/김재용 기자 juk@

시몬스, 네이버페이로 침대 구매 가능

500만원 이상 결제 페이포인트 적립

시몬스가 네이버페이와 손잡고 현장 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

6일 시몬스 침대에 따르면 네이버페이를 통해 전국 시몬스 갤러리와 시몬스 맨션에서 제품 구매시 결제를 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로 500만원 이상 결제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 5만원 적립 혜택이 돌아간다. 네이버페이포인트 적립금은 결제일 기준으로 다음달 말 자동 지급

한다. 또 신한카드를 등록해 네이버페이로 500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추가로 2만5000 포인트가 적립돼 총 7만5000포인트가 쌓인다.

모든 네이버페이 사용자는 결제 완료 후 포인트 뺏기를 통해 랜덤으로 포인트를 추가 적립 받을 수 있다.

네이버페이 간편 현장 결제 혜택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몬스의 ‘2023 SS 웨딩 프로모션’과도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김승호 기자 bada@

김기문 “中企 업무량 늘면 월 100시간도 일할 수 있도록 해야”

〈중소기업중앙회장〉

네번째 임기 시작하며 간담회 열어
윤 정부 2년차 ‘中企 정책과제’ 내놔
中企·소상공인 규제개혁 추진해 달라

“법이 통과되기까지 14년이 걸렸다. (대기업은)법을 만들었으니 지켜야한다. 시행령을 잘못 만들면 효력이 떨어진다. 대기업들은 술선수범해서 중소기업과 상생을 해달라. 대기업이 잘 돼야 중소기업이 잘 된다. 중소기업이 잘 돼야 대기업이 더 잘된다.”

지난달 말 중소기업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연임을 확정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사진)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새 임기 시작을 알리면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납품단가 연동제를 놓고 강조한 말이다.

2027년 2월말까지가 임기인 김 회장은 네 번째 회장직을 이어나가게 됐다.

김 회장은 “네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지난 임기 동안의 노력을 믿어주신 것 같아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론 무거운 책임감도 든다”면서 “이번 임기도 중소기업을 위해 다시 한번 열심히 뛰겠다”고 언론에 간략한 취임 소감을 전했다.

4년 임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김 회장이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노동개혁’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이다.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2년차 정책과제의 견조사’를 실시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서도 정부가 올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 1순위로 ‘주52시간제 등 노동개혁’을 꼽았다.

마침 정부는 같은 날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주 52시간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내놓은 유연화 방안을 놓고 “기업이 필요할때 추가 근로가 가능하도록 열어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만족하진 않는다. (정부

가 완화한 것만으로)중소기업은 바쁠 때 일할 수 없다. 업무량이 폭증할 때 일 본과 같이 월 최대 100시간 또는 연 72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의 불법파업과 반기업 정서가 팽배한 노조에 대해서도 한마디 덧붙였다.

김 회장은 “화물연대 문제처럼 사업자가 근로자인 것처럼 노조형태를 빌어서 불법파업과 시위를 하는 것을 엄중히 대처해야한다”면서 “노조가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옥죄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행태도

고쳐야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윤석열 정부가 2년차를 맞이한 가운데 6대 분야, 15개 과제가 담긴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도 함께 발표했다.

6대 분야에는 ▲고용 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가 두루 포함됐다.

김 회장은 “규제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규제개혁은 정부가 예산 한푼 들이지 않고 기업을 지원하는 수단”이라며 “역대 정권들을 보면 뒤로 갈수록 추진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정부만큼은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응답 중소기업의 70.6%는 ‘만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29.4%는 ‘불만족’을 표했다.

현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노동개혁 원칙 수립(57%)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44.2%) ▲규제개선 노력(30.2%) 순으로 꼽았다.

중소기업들은 올해 정부가 가장 중

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으로 ‘노동개혁’(60.4%)을 1순위로 꼽는데 이어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41.4%) ▲뿌리기업 육성(21%) ▲기업승계 원활화(20.4%) ▲디지털 및 스마트 전환 촉진(12.8%) ▲공동사업 활성화 등 협업지원(11.8%) 등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담합’으로 규정돼 있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판매 행위에 대해 제도 개선을 정부에 그동안 꾸준히 건의해왔다.

김 회장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사업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좋은 수단”이라며 “B2B 거래, 즉 기업 간 거래만큼은 담합의 골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번 정부가 확실하게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인상’(47%)을 비롯해 ‘인력난 심화’(46.4%), ‘인건비 상승’(39.8%), ‘금융비용 부담’(17.6%) 등을 주요 당면 과제로 꼽았다.

또 한국 경제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경직된 노동시장’(34%), ‘저출산·고령화 심화’(20.8%), ‘과도한 규제’(19.4%), ‘대·중소기업 양극화’(16.8%) 등이 올랐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통신비만 꼬박꼬박 내도 신용점수 오른다

통신 3사 합작법인 공정위 통과
통신정보 활용 신용평가 받을 전망

통신 3사 등의 개인신용평가 합작회사 설립과 더존비즈온 등 3사의 기업신용조협회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승인했다. 두 분야 모두 과점 시장으로, 해당 분야 시장 경쟁이 촉진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통신 3사(SKT·KT·LGU+) 등 5개사의 ‘전문(비금융) 개인신용평가회사 설립 건’과 더존비즈온 등 3개사의 ‘기업신용조협회 회사설립 건’을 심사한 결과, 신규 사업자의 진입으로 국내 신용정보업 시장 전반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SKT 등 통신 3사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서울보증보험 등 5개사는 통신정보를 이용한 개인신용평가 합작회사 설립을 위해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설립 회사 지분은 통신 3사가 각 26%, 나머지 2개사가 11%를 보유한

다.

지금까지 개인신용평가업은 금융정보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고, NICE평가정보(70%), KCB(27%)가 장기간 과점 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번 합작회사 설립은 2020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비금융정보’에 특화된 전문 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진입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추진됐다.

통신 3사는 통합된 통신정보를 합작회사에 제공함으로써 개인신용 평가시장에서 통신정보의 활용성과 시장가치를 증대시키고, 금융이력 부족자에게 보다 개선된 금융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비금융 개인신용평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사회초년생이나 주부, 노년층 등 금융서비스 이용 내역이 없어 불리한 개인신용평가를 받는 계층도 통신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합작회사 설립으로 통신 3사가 경쟁사 등에 통신정보를 분쇄할 우려 등을 검토했으나, 복수의 신용평가사를 이용하는 금융기관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분쇄 유인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위주 독과점적 개인신용평가시장에 통신정보에 특화된 전문 개인신용평가사의 등장으로 신용정보업 전반에 새로운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더존비즈온 등의 기업신용조협회 합작회사 설립에 대해서는 “더존비즈온인 보유한 ERP 기업정보가 기업신용조협회 시장에서 갖는 중요도가 크지 않고, 한국평가데이터(52%)와 NICE(47%)가 과점하는 시장에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게 되면 유효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농축산물 물가 ‘안정세’… 여전히 높은 수준

필요시 수입해 물가 하향세 유지키로

추석 이후 농축산물 물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농축산물 특성상 일부 품목은 작황에 따라 전년 대비 크게 폭등했다. 정부는 비축물량 공

급과 필요시 수입을 통해 농축산물 물가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농축산물 물가는 지난해 추석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

비 0.3%, 전년동월대비 4.8% 각각 상승했다. 농축산물은 전월대비 0.7% 하락, 전년동월대비 0.02% 소폭 상승해 농축산물 물가가 전체 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다만 “3월 들어 기상 여건이 호전되고,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 점차 안정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중견련, 중견기업 법인세 추가 인하 건의

FOMEX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23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 제출

중견기업계가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및 주요 7개국(G7)의 법인세 인하 움직임 추세와 역행하고 있다며 경제 활력을 위해 법인세를 내려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3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에서 글로벌 경기 위축, 최악의 수출 실적 등 경제의 ‘적신호’를 돌파하기 위해 법인세 추가 인하, 최저한세 적용 제외 등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밝혔다.

중견련 관계자는 “최고 수준의 법인세율은 물론 OECD 33개국의 단일 구간, 네덜란드·프랑스의 2개 구간과 달리 4개 과세표준 구간을 적용하고 2018년에는 3000억원 초과 구간까지 신설하

는 등 글로벌 조세 트렌드와 반대로 간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연말 국회의 격론을 거쳐 결정할 모든 구간 세율 1% 인하, 여전히 높은 24%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10년의 역행을 바로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조치”라고 말했다.

중견련은 또 연구개발(R&D) 및 통합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기업 투자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한 비과세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중견기업 대상 최저한세 비과세·공제·감면 등 각종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에 최소한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가정신과 경영노하우 전수 등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OECD 최고 수준에 달하는 현재의 상속세율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 동일한 수준인 최대 20년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AI 기업진단 ‘비즈브레인’ 도입

경영성과, 내부역량 등 분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진단 시스템 ‘비즈브레인’을 도입한다.

6일 중진공에 따르면 AI진단은 기업데이터와 약 1000만건의 산업별 데이터를 AI가 자동 연동시켜 외부환경과 경영성과, 내부역량 등을 분석하고 맞춤

사업을 연계해주는 시스템이다. 기존 비대면 진단에서 기업이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빅데이터 분석 방식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또 PC 웹 기반 진단에서 모바일 앱을 활용한 진단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해 고객 접근성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진단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기업맞춤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2023

골드홈 주택디자인 공모전

GOLDHOME HOUSE DESIGN CONTEST

접수 안내

- * 주제 : 단순함과 실용성이 추구되는 전원주택
- * 응모자격 : 대학 건축설계 전공자, 건축설계종사자, 건축업종사자
- * 응모 작품 수 및 인원 : 1인당 1작품, 공동작품은 3인 이내
- * 접수기간 :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31일
- * 신청방법 : 골드홈 홈페이지 내 공모전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반드시 수기 작성하여 제출
- * 제출내용
 - PDF 파일 : 스케치업 투시도, 각 층 평면도, 정면도, 배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단면도
 - 캐드 파일 일체(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스케치업 파일 일체
 - 참가 신청서, 저작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 수기 작성
 - 위의 파일 압축하여 ghm-4@sfsystem.com으로 송부

시상 안내

- * 대상 1명 : 상장, 상금 500만원
- * 최우수상 1명 : 상장, 상금 200만원
- * 우수상 1명 : 상금 100만원
- * 장려상 4명 : 상금 50만원

심사 안내

- * 심사 기준 : 단순성, 편의성, 경제성, 실용성, 미관성
- * 심사 : 골드홈 실거주 20인, 골드홈 대표 건축가 5인

참가 문의

- * 문의 전화 : 1800-7677
- * 골드홈 주택디자인 공모전 운영위원장 원완연 이사

* 자세한 사항은 골드홈 홈페이지(www.goldhomes.co.kr) 공모전 요강을 참고 바랍니다.

포항시, ‘이차전지’ 중심 9조원대 신사업 투자유치 성공

최근 8년간 100여개 기업서 투자
광역 교통망 등 신산업생태계 효과

포항시는 6일 이차전지 등 미래 신 성장산업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기업 투자 유치와 최적의 인프라 구축 등 빼어난 성과를 거둬가면서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신산업 중심도시로의 도약에 탄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민선 6기부터 8기 현재까지 최근 8년 여간 영일 만일반산단, 블루밸리국가산단, 융합 기술산업지구 등 지역 내 산업단지에 이차전지·바이오·수소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총 100여개 기업으로부터 9조 여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 포항시가 철강 일변도에서 신산업으로 산업구조 다변화에 성공하고 있고, 혁신적인 지역 경제 발전 원동력과 차별화된 도시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차전지 혁신 산업생태계 구축 및 인재양성 업무협약식.

포항은 최근 수년간 촉발지진과 코로나19, 경기침체 등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위기를 극복하며 더 큰 도약을 이뤄내기 위해 국내 최초 연구중심의대 포스텍, 세계 3번째 준공된 4세대 방사광가속기, 최고 수준 소재 분야 연구 기관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포항만의 강점들의 활용한 최적화된 융합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 선두에 선 ‘이차전지’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산·학·연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초격차 생태계를 구축하며 대한민국 이차전지 일등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포항은 2019년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 이후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우수특구에 지정됐고, 2021년 준공된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의

거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바이오·수소분야에서도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센터(BOIC)를 비롯해 ‘포항3대 바이오 혁신 플랫폼’인 포항지식산업센터, 세포막단백질연구소,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가 차례로 문을 열면서 바이오기업과 벤처창업의 연구부터 기술 상용화까지 최적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수소 분야 역시 지난해 8월 국토부 수소 도시 지원 사업으로 지정된데 이어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으로 친환경 수소경제 선도시로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에 따르면 “포항의 미래는 기업과 투자 유치에 달려 있는 만큼 미래 산업 생태계 확장과 함께 기업 성장 가능성에 대한 지원을 통한 투자유치를 확대해 100년 먹거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포항(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상도

벤처기업 인증 획득 지원 나서

경상남도는 벤처기업 인증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벤처기업 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021년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도내 벤처기업의 신청 비율이 높았던 ‘보증대출유형’이 폐지되고, 기술성 및 사업성을 평가하는 ‘혁신성장 유형’이 신설되었다. 제도 개편으로 벤처기업이 인증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내 벤처기업 수가 감소하는 등의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벤처기업 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내 벤처기업 수를 늘리고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경남=김영찬 기자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으로 진행 중인 ‘곡성군 안개마을 한달 살기’ 체험 프로그램.

/뉴시스

‘청년마을 조성사업’ 공모

전남도, 30억 투입 10곳 추가 조성

전남도가 청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전남형 청년마을’ 10곳을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 공모에 착수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난해부터 전남도 자체사업으로 시작했다.

청년 중심의 사업 추진 자율권과 주도권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10곳을 선정해 3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을 바라는 청년단체 또는 기업은 오는 17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10곳에는 2년 동안 최대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전남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가와 1대1 매칭을 통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도·시·군 합동으로 분기별 추진 상황을 점검해 사업 진행과 완성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순천 2곳, 곡성·영광·완도 각 1곳 등 총 5곳을 선정했으며 현재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 중이다.

순천 장천동 ‘천천히마을’은 환경과 연계한 청년커뮤니티, 청년잡지 제작, 제로웨이스트 활동을 통해 일 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경북도 “봄맞이 산수유꽃 보러 오세요”

의성군, 25~26일 축제 개최

경북도는 2023~2024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국적인 마케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군 곳곳에서 상춘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다채로운 봄 축제를 개최한다.

봄 축제의 시작은 오는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의성군에서 가장 먼저 꽃망울을 터트리며 만개하는 ‘산

수유마을꽃맞이축제’로 봄을 알린다.

축제기간 의성군 사곡면 화전리에는 조선시대부터 심어져 300년의 수령을 뽐내는 산수유나무 3만 그루가 장관을 연출하고, 산수유 꽃길 걷기, 버스킹 공연 등이 특산물 먹거리장터와 함께 진행돼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이상호 기자

부산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협약

한수원 해외 네트워크 활용 홍보

부산시는 6일 시청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자연과의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두 기관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국내·외 홍보 활동과 2030부산세계박람회가 추구하는 가치 중 하나인 자연과의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에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직접 참석해 업무협약서에 서명하였고, 이번 협약을 통하여 두 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의 각종 네트워크와 채널을

활용,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국내·외 홍보 활동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 물, 식량, 기후 위기 등 세계 인류의 당면 문제에 2030부산세계박람회가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함께, 새로운 기술로, 자연과의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이라는 ‘인류공존프로젝트’에 상호공감하고, 향후 자연과의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도 상호 협력한다.

시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알리기에 한수원의 국내 및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게 돼 대한민국 부산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부산=김영찬 기자 metrobusan3@

안동시, 농업용수 공급에 143억 투입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 33개소 정비

안동시는 올해 농업인의 편리한 농업경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143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업용수 공급 확대에 나선다.

우선, 시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46억6천만 원을 들여 용·배수로, 양수장, 암반관정, 저수지 등의 수리시설 33개소를 정비한다.

또한, 안동호와 인접하나 상류부에 위치해 농업용수 취수가 불가한 와룡산아리상사골 지구 일원에 추진 중인 안동 북부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에 10억 원, 이 용수를 활용한 소규모용수개발사업에 15억 원을 투입해 연장 16.8km의 관로를 설치, 66개소에 추가 급수를 실시한다.

또한, 예안면 도촌지구 다목적 농

촌용수개발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물리면적 35ha로 급수구역을 확장한다. 녹전면 신평리 황정골 지구에도 5억 원을 투자해 양수장을 설치하고 10ha의 급수구역을 확장한다. 이외에도, 암반관정 개발 등 4개소의 농업용수개발사업에 4억 원, 쾌적한 농업경영 환경 조성을 위한 6개소 주민숙원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5억8천만 원을 투입한다.

그리고 기상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농경지 침수방지를 위해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일직 운산2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국비 50%, 지방비 50%)은 2025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201억1천만 원 중 2023년 14억 원의 예산으로 보상협의 및 부대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안동(경북)=이상호 기자

창녕군

상부기관 평가대비 대응책 논의

창녕군은 6일 군정회의실에서 조현홍 군수 권한대행 주재로 중앙 및 경남도 등 상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평가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평가대비 종합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올 한해 달성목표 및 실시 예정인 79개의 주요 시책에 대한 평가기준과 항목을 분석해 성과 향상을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창녕(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장성군

‘고향사랑기부액’ 1억 돌파

전남 장성군의 고향사랑기부제 누적 기부액이 두 달 만에 1억원을 넘어섰다.

장성군은 지난달 28일 기준 총 348명이 장성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기부금액이 1억원을 돌파했다고 6일 밝혔다.

금액별로는 기부자의 80%인 287명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10만원을 기부했다. 10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도 23명에 달했다. 답례품으로 장성사랑상품권 지역화폐, 사과, 대봉꽃감 등 지역 대표 농특산물이 많은 선택을 받았다. /장성(전남)=양수영 기자

영양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시행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취업 취약계층 생계안정과 실업난 해소를 위해 3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2023년 상반기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3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공근로사업에 8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22명, 총 3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군청을 포함한 7개 읍·면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사회복지향상사업, 농어촌일손돕기사업 등의 분야에서 근무하게 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는 관광자원 활용사업, 마을 가꾸기 사업,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지원사업 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짱구·담곰이 등 캐릭터 담은 ‘달달한 캔디’ 선물하세요”

유통가 ‘화이트데이’ 마케팅

GS25 짱구·발란과 3자 컬래버
성수동에 팝업 열고 굿즈 선보여

CU 담곰이 기획세트 10종 선보여
세븐일레븐 산리오와 컬래버
이마트24 380만원 상당 경품



CU가 출시한 화이트 데이 컬래버 상품. 캐릭터 담곰이와 컬래버한 상품을 선보인다. /bgr리테일



스타벅스가 커티스 쿨릭과 협업한 화이트 데이 푸드와 MD를 출시했다. /스타벅스코리아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유통업체가 분주하다. 편의점은 캐릭터 컬래버(협업) 상품에 힘을 주고 있고, 커피 전문점과 제과업체는 화이트데이를 맞아 달콤한 디저트와 음료를 출시하는 모습이다.

6일 유통업체에 따르면 주요 편의점업체들은 지난 밸런타인데이에 이어 이번 화이트데이를 앞두고도 캐릭터 컬래버 상품에 공을 들이고 있다.

GS25는 특별히 캐릭터 짱구와 패션브랜드 발란사가 협업한 3자 컬래버 상품을 선보인다. 7일부터 31일까지 25일 간,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프리미엄 플래그십 스토어 도어투성수에 ‘짱구×발란사’ 팝업스토어를 오픈하며, 3자 컬래버 한정판 굿즈 및 화이트데이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CU는 40여 종의 이색 컬래버 상품을 선보인다. 대표 컬래버 상품은 인

기 캐릭터 ‘담곰이’와 컬래버 해 키링과 스티커를 동봉한 굿즈 기획세트 10종 등이다. 담곰이는 일본 유명 크리에이터 ‘나가노’가 만든 농담곰 시리즈의 장난꾸러기 곰돌이 캐릭터다. 패션 브랜드 ‘김씨네 과일가게’와 컬래버해 과일가게 콘셉트를 살린 다양한 상품을 내놓았다.

세븐일레븐은 밸런타인데이에 이어 화이트데이에도 산리오 캐릭터와 컬래버한 상품을 낸다. 지난 밸런타인데이 때 산리오 캐릭터 캐리어를 선보여 10만 여개가 조기 품절된 후 재출시를 예고한 데 이어 컬래버다. 화이트데이 단독 상품으로 캐리어 4종을 선보이며 품

이마트24는 화이트데이를 맞아 380

만원 상당의 주얼리 등을 경품으로 내건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16일까지 초콜릿/사탕/젤리를 구입하는 고객 중 추첨을 통해 380만원 상당의 티파니엔코 ‘엘사 퍼레티 루비세트(목걸이 & 귀걸이)’, 순금 3.75g, 실버바 100g 등을 증정한다. 하트시그널, 김토기스튜디오 등과 컬래버한 상품도 판매한다.

스타벅스코리아는 7일부터 ‘LOVE ME’를 주제로 하는 신규 푸드와 MD 상품, 스타벅스 카드를 새롭게 선보인다. 특별히 뉴욕에서 활동하며 대표 시그니처 아트웍인 ‘LOVE’, ‘LOVE ME’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아티스트 커티스 쿨릭과 협업했다.

고급스러운 틴 케이스에 다크 초콜릿, 밀크 초콜릿을 코팅한 카라멜과

하트 모양의 라즈베리 초콜릿을 담은 ‘커티스 쿨릭 러브스 카라멜’을 핑크와 골드 두 가지 색상의 패키지로 선보인다. 하트 모양의 ‘러브스 초콜릿 마카롱’과 ‘러브스 스트로베리 마카롱’도 새롭게 출시된다.

아울러, ‘LOVE’ 아트웍을 활용한 다양한 디자인의 MD 상품도 선보인다. 보냉 파우치와 투명한 버킷백이 한 세트 구성되어 각각 단독으로도 사용 가능한 원형 모양의 ‘커티스 쿨릭 클리어 버킷백’, 2명이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크기의 ‘커티스 쿨릭 피크닉 매트’를 포함해 머그와 텀블러 등 협업 상품이 출시된다.

스페셜티 커피 전문 브랜드 폴 바셋은 화이트데이에 선물하기 좋은 썬디 디저트와 MD 상품을 오는 14일까지 할인 판매하는 ‘스윗 러브’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에서는 포르투갈 정통 에그타르트 나타와 포송 마카롱 세트 2종, 다크 초콜릿 2종, 룬드런던 스킵 램프 등 다양한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프로모션 기간에 할인된 금액

폴 바셋 화이트데이 ‘Sweet Love’ 프로모션 상품 모습. /매일유업

으로 만날 수 있는 룬드런던 스킵 램프는 영국 프리미엄 친환경 브랜드 룬드런던과 협업해 만든 것으로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오리온은 ‘마이구미 체리하트’, ‘아이셔 자두맛’ 등 화이트데이 한정판 2종을 출시했다.

마이구미 체리하트는 시즌 특성에 맞춰 마음을 표현하기에 제격인 하트 모양의 젤리로 구현하고, 상콤, 달콤 2가지 체리맛으로 완성했다. 패키지에 ‘하트에디션’, ‘아이러브유’, ‘체리머치’ 등 다양한 문구를 넣어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과 선물을 주고받는 재미를 더했다.

아이셔 자두맛은 화이트데이 분위기에 걸맞게 제품 외관부터 패키지까지 핑크색으로 표현했다. 아이셔 특유의 짜릿한 신맛과 새콤달콤한 자두가 만나 맛에 재미까지 더해, 어린이와 중·고등학생이 친구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가벼운 선물용으로 제격이다.

/신원선·김서현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SPC삼립, 태국 베이커리 시장 진출… CP그룹과 맞손

현지 제품 생산·유통 합작법인 검토
시암 마크로에 사업노하우 제공키로

SPC삼립이 태국 베이커리 시장에 진출하며 글로벌 사업을 확대한다.

SPC삼립은 태국 제1위 기업인 CP그룹의 유통계열사 시암 마크로(Siam Makro)와 태국 베이커리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십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SPC삼립은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태국 베이커리 공동 사업’을 위한 ‘SPC삼립-시암마크로파트너십 업무 협약 체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SPC삼립이 해외 사업 진출을 위해 현지 기업과 체결하는 최초의 파트너십으로 양사는 태국 현지 베이커리 제품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을 검토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진행된 ‘태국 베이커리 공동 사업’을 위한 파트너십 업무 협약식에서 (왼쪽부터) SPC삼립 황종현 대표이사, SPC그룹 허희수 부사장과 마크로 태국 CEO 타닛 치라와는, 마크로 사업 그룹 CEO 사와락 티타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PC삼립

시암 마크로는 2022년 기준 연 매출 약 17조6000억원을 기록했으며 태국 전역에 창고형 마트 ‘마크로’ 150여 곳과 대형 할인점 ‘로터스’ 2500여 곳을 운영하고 있다. 태국 외에도 캄보디아, 인도, 중국, 미얀마에 ‘마크로’ 10곳을 운영 중이며, 아시아 지역에서 유통 및 프

리미엄 식품 수출 사업도 운영 중이다.

SPC삼립은 시암 마크로가 태국 및 동남아 지역에 운영 중인 유통 채널 내 인스턴터 베이커리 위탁 운영을 시작으로 현지 베이커리 제품 생산 및 유통 사업을 추진하고, 제품 개발 및 운영 프로세스, 품질관리 등 베이커리 사업 노하

우를 시암 마크로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70여 년 동안 쌓아온 발효 중심의 미생물 분야 연구개발과 원천기술을 비롯해 디지털 혁신을 바탕으로 CP그룹과 바이오 및 IT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협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SPC삼립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태국을 시작으로 향후 동남아 시장으로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내 베이커리 시장을 이끌어온 역량을 바탕으로 태국 시장에 국내 베이커리 우수성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P그룹은 21년도 기준 약 87조원의 매출을 올린 태국 제1위 기업이다. 산하에 식품분야 CP푸드, 유통분야 CP올, 통신·미디어 분야 트루 등 8개 사업군에 걸쳐 21개국에 진출하였으며, CP올은 태국 전역에서 약 1만 3000개의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운영 중이다. /신원선 기자

‘2022 원 창이 앱 어워드’서
신라면세점 ‘금상’ 수상

신라면세점은 싱가포르 창이공항그룹이 주최하는 ‘2022 원 창이 앱 어워드’에서 최고상에 해당하는 금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신라면세점이 수상한 원 창이 앱 어워드는 창이공항그룹이 한 해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원 창이 앱에 대한 공헌 협력사들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상 중 가장 중요한 본상이다. 원 창이 앱은 공헌 직원들에게 다양한 공지사항과 교육 내용을 전파하는 모바일 앱이다. 창이공항그룹과 공헌 협력사들이 교육 자료를 함께 제작하고 있다. 신라면세점은 높은 활용도, 직원 참여도와 함께 뛰어난 공헌 면세점 운영 능력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우수한 파트너로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서현 기자

티몬 ‘티비온’
‘티몬플레이’로 리뉴얼

티몬이 6일 라이브커머스 ‘티비온’을 미디어커머스 브랜드 ‘티몬플레이(TMON PLAY)’로 리뉴얼한다.

새롭게 선보이는 티몬플레이는 다채로운 쇼핑 팁과 생활 정보 등을 전하고 고객과 함께 소통하는 장(場)을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다.

경쟁력을 가진 상품 판매 라이브 방송은 더욱 강화하는 한편, 빠른 호흡의 스낵커를 콘텐츠를 가미한 시청자 중심의 방송으로 주목도와 팬덤까지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티몬은 유튜브형 영상과 숏폼 형태로 콘텐츠영역을 확장한다. 기존 라이브방송 편집 영상은 물론, 언박싱, 생활 정보, 흥미 중심의 콘텐츠 비중을 늘린다. /김서현 기자

동서식품, 제품 패키지 ‘녹색기술 인증’

커피믹스 등에 우선 도입

동서식품은 커피믹스, 인스턴트 커피 리필, 포스트 시리얼 스탠드백 등 자사 제품군에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포장재를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녹색인증제도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해 유망한 녹색기술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동서식품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기술을 적용, 환경보호에 앞장선다.

동서식품은 맥심 모카골드, 맥심 화이트골드 등 커피믹스 제품을 비롯해 맥심 인스턴트 커피 리필 제품, 스탠드백 형태의 포스트 시리얼 제품, 카누 라떼 제품 등에 녹색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포장재를 우선 도입했다.

이를 통해 연간 잉크 사용량이 기존 방식 대비 약 50%, 잔류용제는 약 99%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원선 기자



쿠광, 11개 브랜드 참여 봄맞이 펫페어

안전문·하우스 등 대량 준비

쿠광이 15일까지 봄맞이 펫페어를 연다. 환절기에 필요한 물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인다.

참여 브랜드는 덩동펫, 인터펫, 브리지데일, 래핑잘리, 뉴트리나, ANF 등 총 95개다. 닥터독, 쿤달, 패리스독 등 11개 브랜드가 신규로 참가한다.

털갈이 시기인 봄철에 맞춘 할인 구색도 갖췄다. ‘환절기 미리 준비 하개’ 테마관에서는 겨우내 두툼하게 자라난

털들이 빠지는 털갈이 시기를 대비한 용품부터 영양제가 준비돼 있다. 인터리어를 바꾸는 사람이 많은 때인 만큼 안전문, 하우스, 캣타워 등 반려동물 가구 물품도 대량으로 준비했다.

‘쇼핑 픽(PICK)’! 집사들이 만족한 리뷰 좋은 상품’ 테마관에는 고객들의 평점이 높은 인기 상품들을 한 곳에 모았다.

와우멤버스십 회원은 최대 30% 한정 특가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구매 금액 대별로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유통가 ‘아티스트 컬래버’, 소비자·브랜드 가치 다 잡았다

할리스, 아트컬래버 MD 4종 출시
스타벅스, 장애인식 개선 공모전
뽕다방, 농가상생 예산사과샌드

유통업계가 역량있는 아티스트와 컬래버(협업)한 제품을 선보이거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를 출시하는 등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통업계의 협업 활동은 소비자에게는 색다른 경험을, 협력 파트너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도 기여한다.

6일 〈메트로경제〉 취재를 종합해보면, 최근 할리스는 일상에서 자주 활용하는 테이블웨어에 아티스트 작품을 접목시켜 아티스트와 고객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MD제품을 선보였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할리스는 ‘제1회 토끼아트 공모전 할리스 특별상’ 수상자인 김규리(작가명: 그림은/Painte



창녕갈릭버거.

/맥도날드

rEUN) 일러스트 작가, 이에진 도예가와 함께 ‘아트컬래버 MD 프로젝트’를 진행해 ‘아트컬래버 MD’ 4종을 출시했다. 토끼 프렌치 커피잔 세트, 토끼 프렌치 접시, 토끼 라운드 커피잔 세트, 토끼 라운드 머그 총 4종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역량있는 아티스트를 발굴해 상품 출시 기회를 제공하고 자 기획됐으며, 티테이블에 잘 어울리는 클래식한 디자인에 실용성까지 갖춰 눈길을 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하트-하트재단, 한



할리스 아트컬래버 MD4종.

/할리스

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탐블러 그림 공모전’을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해 2회 공모전이 진행됐으며, 수상작들은 스타벅스 매장에 전시돼 고객들을 만났다. 수상작들은 스타벅스 크리에이티브 탐블러 디자인과 매장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활용돼 스타벅스 일부 매장과 온라인에서 전시될 뿐 아니라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에 활용됐다.

업계 관계자는 “컬래버 MD 제작은 역량있는 신진 작가들에게 재능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고 고객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제품을 소개할 수 있다”며 “나아가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 상생 활동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뽕다방은 농가 상생을 통해 맛있는 경험을 선사하는 ‘우리 가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예산 사과를 활용한 ‘예산 사과샌드’를 출시했다. 예산사과샌드는 부드러운 식빵 사이에 향긋한 예산 사과로 만든 예산사과잼과 수제크림을 더해 달콤한 풍미를 느낄 수 있다.

뽕다방 측은 “예산 지역 농가와 함께 예산 사과의 향긋하면서도 달콤한 풍미를 오롯이 즐길 수 있는 디저트 메뉴를 가성비 있게 선보이게 됐다”며 “뽕다방은 앞으로도 꾸준히 트렌드에 맞는 여러 디저트 군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햄버거 프랜차이즈 한국맥도날드도 우리 농산물과 특산물을 재료로 쓰는 ‘Taste of Korea’ (테이스트 오브 코리아: 한국의 맛)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사회와 상생하고 있다. ‘창녕 갈릭 버거’ ‘보성녹돈 버거’가 대표적이다. 특히 2021년과 지난해 두 차례 선보인 ‘창녕갈릭버거’는 300만 개 이상의 판매량을 달성했다.

식음료업계와 지역 농가 간 협력은 기업과 농가, 소비자 3자 모두 윈윈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식음료업계는 지역 농산물을 대량구매하면서 원자재 구매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농가는 기업과의 협업으로 활로를 찾은 셈이다.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활용해 만든 메뉴를 맛 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소비주체로 떠오른 MZ세대에게 소비는 단순한 구매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표출하는 수단”이라며 “이에 업계는 착한 소비, 가치 소비에 중점을 두고 협업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아시아 최고 한국맥도날드 배우러 왔어요”

3국 초청 ‘베스트 버거’ 워크숍 열어
전 세계 4번째 아시아 최초로 도입해

아시아 최초로 ‘베스트 버거’를 도입한 한국맥도날드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맥도날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베스트 버거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베스트 버거’는 ‘고객에게 최고의 버거를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조리 방법과 조리 기구 등 버거를 만드는 모든 과정을 업그레이드해 더 맛있는 메뉴를 제공하는 맥도날드의 글로벌 이니셔티브다. 전 세계 마켓 중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에 먼저 도입됐으며, 한국맥도날드는 2020년 전 세계에서 네 번째이자 아시아 최초로 ‘베스트 버거’ 이니셔티브를 도입했다.

‘베스트 버거’ 도입 직후 한 달간 버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



지난 2월 말 한국맥도날드는 ‘베스트 버거 워크숍’을 통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맥도날드의 임직원에게 베스트 버거 시스템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맥도날드

했으며, 소셜미디어에서는 ‘맥도날드가 맛있어졌다’는 고객들의 호평이 이어졌다. 한국맥도날드에 번(버거 빵)을 납품하는 협력업체 빔보코리아는 품질과 맛을 인정받아 ‘베스트 버거 번 아시아 태평양·중동·아프리카(APMEA) 골드 스탠다드 타겟’ 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 2월 말 한국맥도날드는 본사에서 ‘베스트 버거 워크숍’을 열고 인도네

시아, 태국, 베트남 맥도날드의 임직원에게 베스트 버거 시스템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해외 맥도날드의 임직원들은 매장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에서 ‘베스트 버거’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한국맥도날드에서만 만나 볼 수 있는 다양한 메뉴를 맛보기도 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패치니완 탄프라왓 태국맥도날드 최고마케팅책임자(CMO)는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베스트 버거’ 이니셔티브를 도입해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마켓”이라며 “관련 인사이트를 태국맥도날드에도 적용해 고객들에게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선사하고자 이번 워크숍에 참석하였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JW중외제약 ‘헴리브라’ A형 혈우병에도 효과

임상 결과 국제학술지 온라인 게재

JW중외제약은 A형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의 경증 및 중등도 환자 대상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한 임상 3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단셋 헤마톨로지 2023’ 온라인판에 게재됐다고 6일 밝혔다.

헴리브라는 혈액응고 제8인자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하는 A형 혈우병 치료제다. A형 혈우병은 혈액응고 제8인자 활성화 수치에 따라 ▲경증(8인자 5% 초과~40% 미만) ▲중등증(1% 이상~5% 이하) ▲중증(1% 미만)으로 나뉜다.

클라우드 네그리외 프랑스 클로드베르나르 리옹1대학 교수를 비롯한 18명의 교수진은 유럽과 북미, 남아프리카 등 22개 기관에서 경증 및 중등증 A형 혈우병 비항제 환자 72명을 대상으로 약 55주간 임상을 진행했다.

연구진은 환자들에게 첫 4주간 헴리브라를 주 1회 투여한 뒤 ▲주 1회 또는 ▲2주 1회 ▲4주 1회 선택 투여해 출혈

량과 혈전성 이상반응 등을 평가했다. 임상 결과 10.1회였던 연평균 출혈 빈도(ABR)는 헴리브라 투여 후 0.9회로 감소했다. 이 가운데 치료가 필요한 관절 출혈과 자연출혈 ABR은 각각 0.2회로 나타났다. 예방요법으로 기존 응고인자 치료제를 투여했던 환자군의 ABR은 임상 전 12.2회에서 임상 후 2.2회, 출혈시 투여군에서도 8.0회에서 2.4회로 개선됐다. 임상 중 출혈이 발생하지 않은 환자는 8명으로 집계됐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15명의 환자에게 주사부위 관련 경미한 부작용이 나타났으나 사망 또는 혈전성 미세혈관병증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

헴리브라는 이 같은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초 유럽연합(EU)에서 비항제 중등증 A형 혈우병 환자를 위한 예방 치료제로 승인받았다. /이세경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하림, 핑크솔트 양념 한입 닭다리살 선포

종합식품기업(주)하림이 신선한 닭다리살 본연의 맛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신제품 ‘IFF 핑크솔트 한입 닭다리살’을 출시한다.

하림 ‘IFF 핑크솔트 한입 닭다리살’은 100% 국내산 닭다리살을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한 다음 미네랄이 풍부한 히말라야 핑크솔트로 가볍게 양념한 제품이다.

닭다리살을 영하 35℃ 이하에서 40분간 개별급속동결하는 첨단 IFF기법을 적용해 더 신선하다. 프라이팬이나 에어프라이어에 굽기만 해도 닭다리살 고유의 고소한 감칠맛을 즐길 수 있다.

/신원선 기자

셀트리온 램시마SC 신규 임상 결과 공개

크론병·궤양성 대장염 임상 문제 없어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2023 유럽 크론병 및 대장염학회(이하 ECCO)에서 미국 허가를 목적으로 진행한 램시마SC의 신규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공개했다.

첫 번째 임상은 크론병(CD) 환자들을 대상으로 램시마 투여 후 유지 치료 시 위약(가짜약) 대비 램시마SC의 효능 및 안전성을 분석한 결과로, 온라인에서 구두 발표로 공개됐다. 중등도 및 중증의 CD 환자 343명을 대상으로 10주차에 램시마SC 투여군과 위약 대조군을 2대1로 무작위 배정한 뒤 54주차에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1차 평가지표

인 임상적 관해는 램시마SC 62.3%, 위약 32.1%로 나타났으며 내시경적 반응에서도 램시마SC 51.1%, 위약 17.9%로 대조군 대비 높은 유효성 결과가 확인됐다. 램시마SC 유지 치료에 따른 새로운 안전성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두 번째 임상은 궤양성 대장염(UC)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3상에서 램시마SC 유지 치료 시 위약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우위를 나타내는 지분적인 결과로 포스터 발표를 통해 공개됐다. 임상 결과, 1차 평가지표로 설정된 임상적 관해에서 램시마SC 투여군이 43.2%로 위약 대조군 20.8% 대비 높게 나타났으며, 해당 임상에서도 새로운 안전성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세경 기자 seilee@

정관장 어린이 입맛 사로잡는 홍삼 2종 출시

‘홍이랑튼튼’, ‘홍이랑쑥쑥’ 신제품

정관장이 신학기 시즌을 맞아 성장기 어린이를 위한 맛있는 홍삼, ‘홍이랑튼튼’, ‘홍이랑쑥쑥’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

‘홍이랑튼튼’과 ‘홍이랑쑥쑥’은 6년근 홍삼과 성장기 어린이에게 도움이 되는 각종 부원료를 과학적으로 배합하면서도 까다로운 입맛의 아이들도 맛있게 섭취할 수 있도록 설계한 어린이 홍삼제품이다.

‘홍이랑튼튼’은 만 4~6세 유치원생을 위한 제품으로 홍삼농축액과 녹용추출물, 비타민C, 비타민B, 칼슘, 엘더베리농축액, 대추농축액 등을 더하여, 기초부터 탄탄하게 면역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



만 7~9세를 위한 ‘홍이랑쑥쑥’은 홍삼농축액과 녹용추출물, 비타민C, 비타민B, 칼슘, 식물혼합농축액(홍화자·산사자·두충·복령·백출) 등을 첨가하여, 성장기 어린이의 꾸준한 체력관리에 도움을 준다. 파인애플농축액과 레몬농축액을 첨가하여 새콤달콤한 맛으로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성향료·감미료·착색료 등 불필요한 첨가물은 배제하여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신원선 기자



2023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불확실성의 시대,

재테크·세테크



기조강연
글로벌 경제와 한국경제 전망

김영익 서강대 경영대학원 교수



강연. 1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강연. 2
부동산 규제완화와
세테크 전략

호지영 우리은행 세무사



강연. 3
은퇴 준비와 재테크 전략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2023. 3. 22 (수)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철저한 방역 하에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하는 만큼, 사전 등록은 필수입니다

- 축 사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 개 회 사 :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이사
- 기조강연 : 김영익 서강대 경영대학원교수
- 강 사 :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 호지영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 세무사 /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사전등록 :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 문 의 : 100세 플러스 포럼 사무국(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상기 일정 및 후원, 강연 등의 내용은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SKT, ICT 패밀리사 차원 헌혈 릴레이 진행

SK텔레콤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국내 혈액 수급난 극복을 위해 SK ICT 패밀리사 차원의 헌혈 릴레이를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행사는 오는 3월 말까지 진행되며, 이를 통해 기증된 헌혈증은 필요한 곳에 기부될 예정이다. /SKT



두산건설, 위기가정 지원… 성금 2600만원 기탁

두산건설은 부산 남구 우암동, 감만동 일대 취약계층을 위해 사랑의열매 기탁금 26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사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오세욱 두산건설 상무(오른쪽)와 권용규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사무처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두산건설



KB국민은행-성신여대, '리브 캠퍼스' 서비스 맞손

KB국민은행이 성신여자대학교와 금융권 최초의 메타버스 기반 모바일 학생증 '리브 캠퍼스' (Liiv Campus)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성근 성신여자대학교 총장(왼쪽)과 김동록 KB국민은행 기관고객그룹 부행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애경산업, 여성 자립준비청년에 위생용품 기부

'사랑(愛)과 존경(敬)'의 기업 애경산업의 여성 바이오 브랜드 '치유비'(ChiuuB)가 다가오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서울시의 여성 자립준비청년(보호종로아동)을 위해 여성 위생용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치유비 제품은 서울시에 거주 중인 여성 자립준비청년 400여명에게 후원될 예정이다. /애경산업



롯데칠성음료, '착한소비 챌린지' 캠페인 전개

롯데칠성음료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손잡고 'ESG 사회공헌매대 캠페인' 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롯데칠성음료와 사랑의열매는 '23년에도 계속되는 착한소비 챌린지'라는 콘셉트의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며,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가 동참하는 생활 속의 착한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롯데칠성음료

LG전자, 6년 연속 'AHRI 퍼포먼스 어워드' 수상

냉난방공조 솔루션 기술력 입증 에너지 회수형 환기장치 첫 수상

LG전자가 냉난방공조 솔루션 기술력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LG전자는 올해에도 미국냉동공조협회(AHRI) '퍼포먼스 어워드'를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1953년 출범한 AHRI는 인증기관 인터텍 등을 통해 제조사별로 제품을 무작위로 선정해 실제 성능과 사양이 부합하는지를 엄격하게 평가, 3년 연속 1차 성능평가를 통과하면 퍼포먼스 어워드를 시상하고 있다. 소비자 신뢰도 높다.

LG전자는 2018년부터 6년 연속으로 수상에 성공했다. 지난해 ▲대용량 시스템 에어컨(VRF) ▲공랭식 냉각시스템(ACCL) ▲수랭식 냉



LG전자 멀티브이

각시스템(WCCL) ▲소형 단일 냉난방기(USHP) ▲실내 팬 코일 에어컨 ▲상업용 일체형 냉난방기(PTHP) 등 6개 제품군에 이어 올해에는 ▲에너지 회수형 환기장치(ERV)로 확대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퍼포먼스 어워

드를 수상한 LG전자 에너지 회수형 환기장치(LG ERV)는 실내 공기를 바깥으로 배출하고 필터를 거친 깨끗한 외부 공기를 실내로 공급해 준다. 전열교환기를 탑재해 외부로 배출되는 공기의 열 손실을 대폭 줄여줘 냉난방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 시

스템 에어컨과 연동해 최적의 운전 모드로 실내 공기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준다.

LG전자는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북미 상업용 에어컨 시장에서 10년 이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LG전자 H&A사업본부 에어솔루션사업부장 이재성 부사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은 앞선 공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내 공기를 더욱 쾌적하게 관리하면서 에너지는 아껴주는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한화그룹, 사이언스챌린지 개최… 지속가능 미래인재 발굴·육성

올해 슬로건 '세이빙 더 어스' 대상 4000만원 등 2억 규모 시상

한화그룹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미래 꿈나무들의 발굴·육성에 나선다.

한화그룹은 미래 과학 꿈나무 육성 대회인 '한화사이언스챌린지 2023'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하는 한화사이언스챌린지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주창한 '한국의 젊은 노벨 과학상 수상자 양성'이라는 모토로 2011년 처음 개최된 전국 고등학생 대상 과학 아이디어 경진대회다.

올해의 슬로건은 '세이빙 더 어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Saving the Earth) : 지속 가능한 내일을 만드는 과학적 아이디어'로 참가자들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논리성, 실용성을 바탕으로 구성해 겨루게 된다.

고교생 2명과 지도교사 1명이 한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학교당 출전 팀수에 제한은 없으며 타 학교 학생과 연합출전도 가능하다. 참가 희망자는 다음달 12일까지 한화사이언스챌린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1·2차 예선은 온라인 심사로, 최종 본선은 8월 23~24일 오프라인 심사로 진행된다. 대상 1개팀 4000만원, 금상 2개팀 각 2000만원 등 총 2억원 규모의 시상이 이뤄진다.

은상 이상 수상 5개팀(10명)에는 해외 유수의 과학 기관과 공과대학, 한화그룹 글로벌 사업장 견학 등의

기회가 주어지며, 취업 시점까지 단계별 멘토링과 커리어 관리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

한화그룹에 따르면 작년 기준 성인이 된 수상자 451명 중 353명(78%)이 이공·공학계열 대학에 진행했고 이중 석·박사과정을 이수 또는 졸업한 인원이 44명, 학업을 마친 후 공학관련 업계에 취업 혹은 창업한 인원은 35명이다.

한편 한화사이언스챌린지는 지난 11년간 약 6400여 개 팀, 1만4000여 명의 과학 영재들이 지구와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고민과 생각을 공유해 왔다.

/양성운 기자 ysw@

포스코-경북도, 태풍피해 조기 복구 협약 철강재 등 재난안전 인프라 혁신 추진

교량·강건재 기술협력 추진

포스코가 경상북도와 한반도 태풍피해 조기 수해복구 추진을 위해 협력한다.

포스코는 6일 경북도청에서 경상북도와 포항시 및 경주시 일원의 수해복구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포스코 강건재 마케팅실에서는 경상북도의 수해복구 및 방재사업에 사용되는 건설용 철강재를 공기에 맞춰 우선 생산·공급하고, 자연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강교량 및 포스코의 재난안전 인프라 솔루션을 적용하는 등 경상북도와 상호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또 철강솔루션연구소와 함께 친환경 강교량 적용을 위한 설계, 구조해석, 기술자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상북도는 현재 포항시와 경주시 일원의 지방하천과 도로에 대해 실시설계 중으로 사전심의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설계를 마무리하고, 4월부터는 공사를 발주할 계



포스코 김학동 부회장(오른쪽)과 경상북도 김학홍 행정부지사가 6일 경북도청에서 한반도 태풍피해 조기 수해복구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획이다.

포스코와 경상북도는 이달 내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재해예방을 위한 교량 및 강건재 제품 기술 협력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학동 부회장은 “냉전 범람으로 포항제철소가 침수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와 민·관·군의 제철소 정상화를 위한 헌신과 노력에 힘입어 침수 135일만에 복구를 완료하는 기적을 이뤄냈다”며 지역사회의 도움에 감사를 전했다.

/양성운 기자

인사

◆ **월요신문** △대표이사 회장 김순옥 △대표이사 사장 윤소희

◆ **기획재정부** ◇과장급 △부가가치세 제과장 조용래 △환경에너지세제과장 김태정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상임이사 선임 △부사장 겸 기획이사 기노선 △수출식품이사 권오엽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관리직 승진 △기획조정실장 김상기 △사업관리본부장 및 교육시설지원처장 겸직 이병호 △부산·경남권지부장 및 대구·경북권지부장 겸직 박남수 △기획조정실 기획인사팀장 박재일 △운영지원처 재무팀장 전명희 △공제사업처 김태형 △경기·인천권지부 배진한 △호남·제주권지부 이두리 △운영지원처 전현구 △대구·경북권지부 김수환 △공제사업처 이승규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만희 △운영지원처 하미진 △공제사업처 강남옥 △안전관리처 김동연 △안전관리처 방우일 △기획조정실 이혜국 △운영지원처 조용진 △통합정보처 이강현 △통합정보처 정진아

◆ **보험연수원** ◇본부장 승진 △연수부장 연재은 ◇전보 △연수본부장 배병한

◆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전보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장 윤동진

◆ **시사위크** △편집국장 정소현

◆ **한국연구재단** ◇본부장 선임 △국책연구본부장 최영진

부음

▲문창남씨 별세, 이경석(한국배구연맹 경기위원)씨 방부상=6일, 서울 순천향대학병원 장례식장 1호(지하), 발인 8일 0시. 010-5301-2202

▲장수일씨 별세, 장동민(대한한의학학회 前 대변인(홍보이사))씨 부친상=6일 별세,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303호실, 발인 8일 오전 5시. 010-3233-1315

▲신수균씨 별세, 신종훈(뉴시스 지방본부 관리/사업부장), 혜정, 봉현씨 부친상, 신재하(전 RBS코리아 상무), 박순보(전 LG파워콤 강원지사장)씨 장인상, 김수영(아시아나항공 차장)씨 시부상=6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발인 8일 오전 7시 02-2227-7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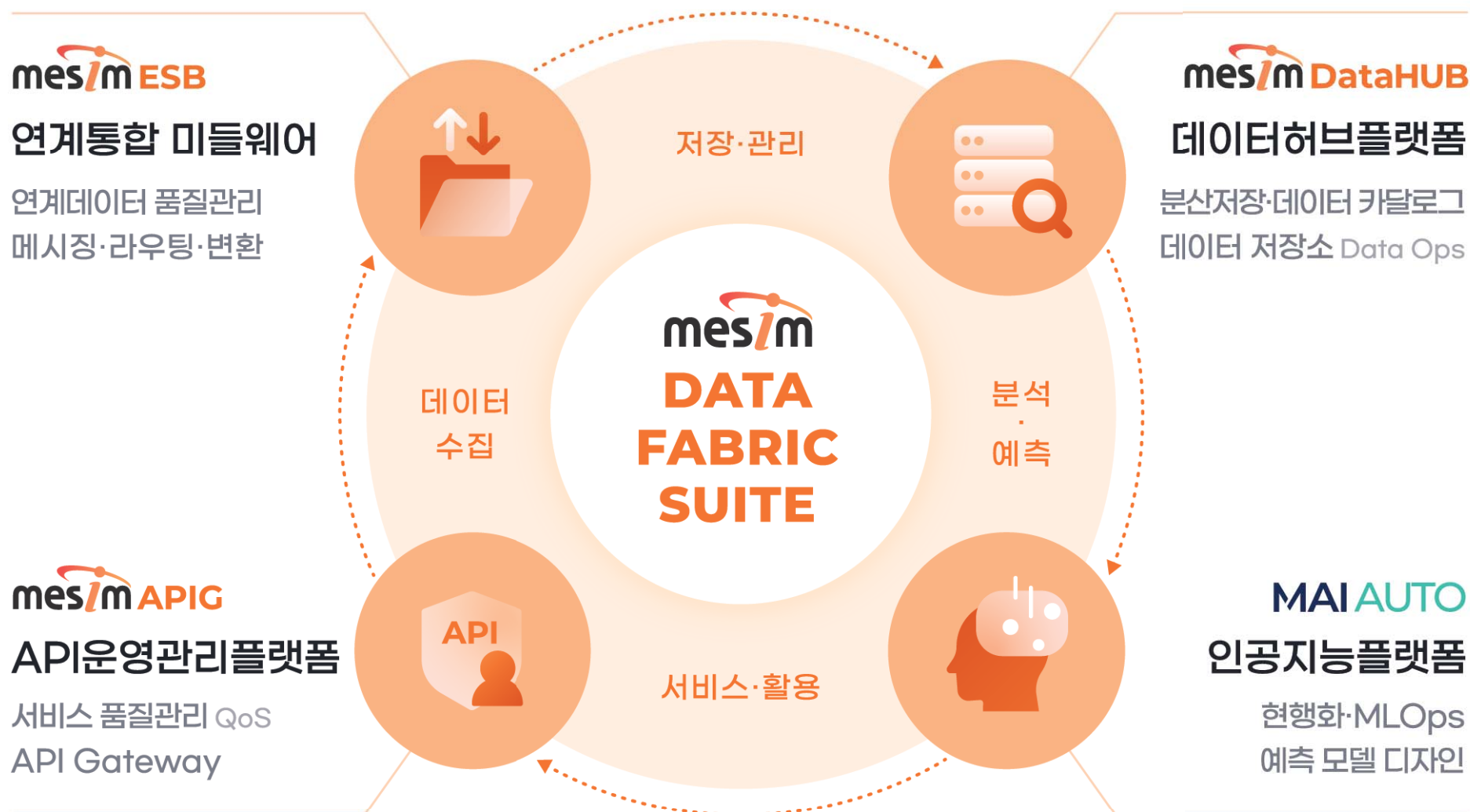
▲손준규(동국대 명예교수)씨 별세, 정우남씨 남편상, 손주호(전 국민은행 지점장)·승호(한국수출입은행 부장)·민호(데미안필름 대표)씨 부친상, 배명림(방역지원본부 수의사)·최주희·이영아씨 시부상=5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2실, 발인 8일 오전 8시, 장지 경기도 광주 충현동산. 02-2227-7500

데이터 연계통합(ESB/IoT/망간) SW 3,000여 기관 공급
최고 품질·성능·실적·기술



DX 및 지속가능 데이터 수집·분석·활용을 위한 Data end2end 기반 핵심기술

DATA FABRIC SUITE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수급대상 예측 서비스 #한국도로공사 디지털트윈기반 교통상황시스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계기관 시스템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통 빅데이터 분석 표출 시스템
#행정안전부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감염병 대응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등

푸드트럭, 청년창업의 꽃에서 무덤으로



이 상 현
창업 칼럼

언제부터인가 푸드트럭은 청년창업의 대표 창업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고 청년들의 열정과 아이디어 그리고 노력을 통해 새로운 성공을 가능한 업종이라는 인식이 통념화했다. 미국 맨하탄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거리축제형식의 푸드트럭 창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한몫했다.

정부는 푸드트럭 창업을 독려하기위해 그동안 많은 규제와 허가의 까다로움을 없애는 동시에 규제개혁을 통해 지자체별로 다양한 지원체제로 인하여 청년창업형태로 창업이 증가했었다. 하지만 현실은 한 국형 새로운 청년창업의 모델에 대한 기대와 성공모델이 되었던 미국시장의 성장과는 다른 결과를 가지고 왔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푸드트럭은 1841대다. 서울이 가장 많은 461대, 경기도 424대, 경상도 250대, 충청도 153대, 전라도 141대, 강원도 88대등으로 지역적으로 나뉘어져

있다. 현실은 데이터상으로만 영업을 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등록된 주소지로 영업 상황을 확인해보면 거의 운영을 하지 않거나 트럭 조차도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렇다면 그 이유와 대책이 필요함을 당연하다. 먼저 푸드트럭이 왜 청년창업의 대표 열정창업아이템으로 불려져야 만 하는가? 푸드트럭은 점포형 창업이 아닌 로드형&이동형 창업이기에 많은 영업적 노력과 경험 그리고 실행력이 필요한 창업형태다. 오히려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 성공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창업형태에 가깝다. 하지만 정부기관에서 모집하고 지원하는 창업대상은 거의 청년으로 국한되고 그들에게만 푸드트럭 창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영업형태를 100% 푸드트럭만을 활용한 창업을 지원하는 행정적 절차기준도 문제로 지적하고 싶다. 예를들어 서울시에서 공모한 밤도깨비 푸드트럭 행사에 창업기업 모집요강을 보면 사업자등록을 푸드트럭으로 국한된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점포형사업과 병행하는 사업자는 신청조차 불허하고 있다. 탁상행정과 현실을 무시한 공고기준이다. 우리나라는 사

계절을 가지고 있어 야외에서 판매하는 푸드트럭의 계절별 영업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장소적 허가를 득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제한이 더욱 푸드트럭의 활성화가 어려운 환경임을 직시해야 한다.

현실적 성공 가능한 사업형태는 점포형과 결합된 푸드트럭운영이 합리적이고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창업형태다. 계절적 비수기엔 점포형 창업으로 운영하고 축제나 행사 계절적 호환되는 기간에는 푸드트럭으로 이동형 운영의 경우가 훨씬 합리적 형태의 창업이다.

근본적으로 청년창업으로 국한되는 푸드사업 형태나 지원형태 변화도 시급하다. 시니어나 장년층 창업자에 대한 푸드트럭 문호를 넓히고 업종의 다양화도 음식업 아닌 서비스업이나 판매업으로의 활성화도 필요한 대책이다. 영업장소의 규제를 완화해서 고객과의 접근성과 흡입성 측면에서 안정적 상권확보가 절실히를 기본이다.

청년의 본질은 열정일 것이다. 그러나 열정만으로 승1부하기엔 창업시장이 총탄 없는 전쟁터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소장(컨설팅학 박사)

고용부 ‘중대처벌법’ 반박…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



김지수
원승일
(정책사회부)

올해 1월 19일, 본사는 [‘중대처벌법’ 결국 없앤다]제목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그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명칭 개정 또는 폐지를 검토하거나 추진한 바 없다”는 반박자료를 냈다.

한 달 뒤 JTBC는 [‘CEO 처벌 조항’ 삭제 검토…중대재해법 ‘누더기’ 위기]를 단독 보도했다. 그날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내용과 관련해 확정된바 없다”는 반박자료를 냈다.

중대처벌법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났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중대처벌법 도입 후 산재 감축 효과는 커녕 모호한 처벌 기준으로 현장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작년 한 해만 사망한 노동자가 644명, 그런데 처벌은 단 1건도 없었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중대처벌법을 사실상 ‘사문화’된 법으로 여기고 있다.

기사 보도 후 고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사문화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작동이 안 되는걸 말하는데 중대처벌법은 작동되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 알고 있는데, 확정 판결이 아직 없다고 사문화라 한다면 그건 아닌 듯.”

중대재해 예방 효과가 있든 없든, 불명확한 처벌 기준과 장기화된 수사로 현장 혼란이 있든 말든, 법이 일단 시행됐으니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고용부의 인식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JTBC 보도에 앞서 본지는 2월 1일 [고용부의 고해성사 ‘중대처벌법, 애초 계획 없었다’]란 후속 기사를 냈다. 중대처벌법 제

정 전 고용부가 중대재해 발생 시 과징금 부과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을 검토했다는 내용이다.

고용부는 반박자료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안전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재방식 개선, 처벌요건 명확화 등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장편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는 1936~39년 스페인 내전을 겪은 뒤 전쟁의 허무함을 표현했다. 여기서 종은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교회의 조종(弔鐘)을 말한다. 노동자가 죽은 후에 울리는 종은 허무하다. 사망사고 발생 후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처벌법이 허무한 이유다.

본지는 사망 전 예방이란 법적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이 시급하다고 썼다. 그런데, 고용부의 반박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won@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3월 7일 (음 2월 16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배우자를 귀한 손님처럼 대우해보시라. 48년생 아침부터 목마르다고 술을 마시면 어찌되겠는가. 60년생 나를 약방의 감초처럼 항상 반가워한다. 72년생 남의 좋은 얘기를 별로 하지 않는 세상인심. 84년생 승진에 신바람이.



37년생 하루를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49년생 그물을 치지 않고 고기가 잡히기를 기대하지 마라. 61년생 최선의 해결책은 타협하는 것. 73년생 배우자의 삼각관계조심. 85년생 배움에는 세월이 없으니 모르는 것은 공부해서 대비.



38년생 돈을 자손이 지킬 수가 있을지가 의문이다. 50년생 굳은살이 생겨서 아픈 줄도 모르겠다. 62년생 철들만 하니 또 엉뚱한 일이 생긴다. 74년생 부모님의 안부와 건강을 챙겨보라. 86년생 군무 중인 12시에 음주는 곤란하다.



39년생 협력자를 먼저 구하고 일을 시작. 51년생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를 조심. 63년생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75년생 결과가 좋아야 과정도 좋은 평가를 받는 법인데. 87년생 씨를 뿌리면 수확은 거두게 마련이니 부지런히.



40년생 하늘이 맑고 푸르니 마음도 상쾌. 52년생 배우자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날. 64년생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지 못한다. 76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면 못할 일이 없다. 88년생 노력 앞에는 하늘의 복이 따르게 마련.



41년생 누구에게나 비취주는 태양에 감사. 53년생 자식이 좋은 일이 있으니 마음이 흐뭇하다. 65년생 문서 운이 있으니 용담의 도움으로 거래가 성사. 77년생 거울은 반드시 혼자 웃지 않는다. 89년생 얹혀있던 돈 실태라가 풀린다.



42년생 변화무쌍한 날이니 대비를 철저히. 54년생 기대를 많이 한다면 노력도 그만큼. 66년생 조금힘이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신중하게 행동. 78년생 새로운 만남을 조심. 90년생 이별로 마음이 좌불안석이고 일이 눈에 안 들어온다.



43년생 아름다운 정신을 가진 당신의 승리. 55년생 배우자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67년생 명석이 깔렸으니 하고 싶은 일을 맘대로 해보라. 79년생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희망을. 91년생 참을만하니 계속 암살을 부리지 마라.



44년생 결심만 열 번을 넘게 한다. 56년생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 68년생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주니 마음을 다스려라. 80년생 기다리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라. 92년생 피해주지마라 좁은 곳에서 만나면 피하기 어렵다.



45년생 목표를 세우고 한결음씩 나아가라. 57년생 회사는 전쟁터지만 밖은 지옥이다. 69년생 천릿길도 한결음부터. 81년생 한발 물러서 보면 길이 보이게 되니 여유를 가져라. 93년생 계산상 이익에 김치국부터 마시다가는 낭패를 본다.



46년생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심정. 58년생 최선의 리더십은 술선수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70년생 일이 하기 싫으니 변명만 보인다. 82년생 신념을 갖고 기술력을 높이자. 94년생 업무적으로 선배를 도우면 나도 도움 받게 된다.



47년생 잘못된 얘기는 귀를 막고 듣지를 말아야. 59년생 희망에 비싼 값을 지불. 71년생 마음이 평화로운 하루. 83년생 집안청소를 서둘러서 행해보라. 95년생 혼자 잘산다는 것은 천만에 직접간접으로 사람들의 협조가 있어야 할 수 있다.

김상회의四季

진도준 퇴기 ②



그렇다. 진도준 처럼만 투자하면 누구라도 부자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 드라마 작가는 이미 사회적으로 있어온 투자 달인들의 예를 소재로 사용했다. 저평가된 땅을 저가에 일찌감치 매입하여 놓고 때를 기다린다. 사전에 어떤 개발 계획을 얻어서 부동산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향후 십년이나 그 이상의 기간을 내다보고 기다린다. 당대가 아니더라도 자손에게 물려주면 될 일이다. 실제로 분당이 처음 뜨기 시작할 때 토박이 원주민들이 토정이지함의 자손들이었다고 한다.

토정은 유언을 남기기를 자손들이 지금의 분당 지역이었던 지역에 집성촌을 이루고 떠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미래를 볼 줄 알았던 선견으로 짐작된다. 부동산투자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주식투자자에 희망을 건다. 역시 저평가 되었거나 전도가 유망한 주식에 투자하여 단시일 내에 대박을 터뜨려보고 싶은 것은 누구라도 바라는 일이지만 그 타이밍을 알기도 어렵고 또 큰 재산을 만들 만큼의 종자돈 마련도 쉽지 않다. 그러나 나름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은 회사의 내부정보를 얻어 호재 발표전에 매수하여 큰 이득을 얻으며 혹 회사부실이나 손실과 같은 악재공시 전에 미리 매도를 하여 손실을 회피하니 주식시장에 있어 일반인들은 그저 재미군단일 뿐이다.

척척 재테크의 달인이 되기는 사실 하늘의 별 따기인 것이다. 그런데 요즘 인공지능AI이 대세다. 게다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챗GPT가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다. 모르면 물으라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현재 주가의 향방이나 투자방향에 대해 엄청난 투자조언을 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환생하지 않아도 인공지능 AI가 미래 예측치를 내줄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의 진도준은 AI나 챗GPT일지도 모르겠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 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파를
사우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5		2		9
7					2
	6		9	1	5
	2		7	3	8
	7		6	8	2
			4		
9	3				4 1

			6	3		9	8			
8	4							1	5	
	9							2		
		8					3			
	3	4	2		6	5	8			
	8							5		
		2	5		3	7				
	5							6		

정답

1	4	8	2	9	5	3	6	7
6	9	2	3	4	7	8	5	1
5	8	3	6	8	1	2	4	9
4	2	6	8	1	9	3	2	5
9	8	1	5	9	3	6	2	4
3	5	4	7	6	2	9	1	8
8	5	3	1	2	6	4	9	7
2	1	9	5	4	7	8	6	3
7	6	4	9	2	8	1	5	3

8	9	4	2	6	1	3	5	7
1	6	3	5	8	9	2	4	7
5	9	2	4	7	9	1	8	6
6	8	5	9	1	2	7	4	3
9	4	7	1	9	6	8	2	5
3	2	1	8	4	7	5	6	9
5	1	6	3	2	9	4	7	8
2	3	8	6	4	5	9	1	7
4	7	9	5	1	8	6	2	3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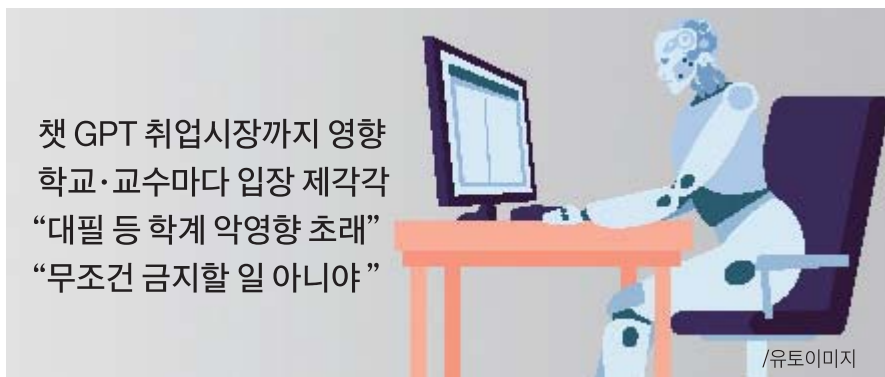
http://argo9.com

대학가, ‘챗 GPT’ 활용 이견… 허용 불가 vs 바르게 써야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가 성행하면서 대학가에서도 수업내 접목, 자기소개서 작성 등 활용 여부를 두고 논의가 한창이다. 표절·대필 등 악용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과 발전하는 시대에 발맞춰 활용법을 익혀 나가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다.

6일 대학가에 따르면 새학기를 맞은 대학가에서는 챗GPT 수업 내 활용을 두고 학교·교수마다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인다.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강의계획서를 통해 ‘챗GPT를 과제 및 시험에 붙여 넣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권 교수는 최근 ‘대학 현장에서 챗GPT 활용 시 예상되는 문제들’이라는 주제로 해설문을 올린 바 있다. 글에서는 대부분의 학회나 저널의 리뷰어들이 기존에 하던 방식을 유지하면서, 챗GPT 자동작성 여부 검사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논문의 양



챗 GPT 취업시장까지 영향
학교·교수마다 입장 제각각
“대필 등 학계 악영향 초래”
“무조건 금지할 일 아니야”

산, 더 제한된 리뷰 과정을 통해 더 확실한 논문 출판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학계의 지속가능성을 약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마동훈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등도 불안전하고 표절의 위험이 있음에도 참고해 왔었던 것처럼 챗GPT도 충분히 우리가 참고할 만한 하나의 ‘워크북’이 될 수 있다”며 “챗GPT가 정해 주는 답으로 정답이 나올 수 있는 시험은 앞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마 교수는 올해 ‘미디어 테크놀로지와 문화’ 강의에서 챗GPT를 지도서로 활용해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업 평가 방식으로 오픈 챗GPT 시험을 치르는 방법도 구상하고 있지만, 챗GPT가 주는 답이 정답이 되지 않는 시험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수의 노력이 몇 배는 더해진다고 설명했다.

챗GPT의 현장 활용은 이미 현재진행형인 상황으로 대학을 넘어 취업 시

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챗GPT 등 인공지능 생성형 AI가 작성한 자소서를 두고 대필인지에 대한 쟁점이 논의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주요 기업들이 생성형 AI가 작성한 자소서를 걸러내기 위한 프로그램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되는 점은 챗GPT를 활용하는 사용자들도 긍정적인 활용법을 익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챗GPT의 도움을 받은 과제·자소서에 정당성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외대에 재학 중인 송모(27)씨는 “챗GPT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상황과 어투를 선택해 콘텐츠를 생각하도록 할 수 있어 학습의 폭이 다양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같은 맥락에서 챗GPT를 과제에서 사용하게 될 경우 그것을 학생 본인의 결과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문을 던졌다. 현재로서는 AI의 결과물을 이름만 고쳐서 가져다 쓰는 방식에 불과

하다는 평가다.

언어학과가 많은 한국외대는 챗GPT의 사용량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예견되는 만큼 챗GPT를 접목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외대 관계자는 “앞서 파파고나 구글 번역기가 등장했을 때도 유사한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에는 외국어 수업에서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조건적으로 금지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범위 내에서 바르게 활용시킬 수 있도록 교육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이버대학에 진학한 이모(25)씨도 “챗GPT를 사용해 쓰여진 과제나 논문을 내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용을 금지시키더라도 사용자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다만 취업 시장에서는 자소서 대필이나 첨삭 등의 사례는 흔하기 때문에 챗GPT 활용하는 방안이 괜찮아 보인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서울시민들 “주민자치회 성과·인지도 부족” “급식종사자 3분의 1, 폐 CT 이상소견”

서울시의회 주민자치회 여론조사 응답자 90% “제대로 알지 못 해”

서울시민들은 주민자치회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 또한 부족해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자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시민도 상당수였다.

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작년 11월 10일~12월 7일 한국갤럽이 시의회의 의뢰를 받아 서울 거주 20대 이상의 성인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성과 및 인지도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자치회에 대해 듣거나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들어봤고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10.3%밖에 되지 않았다. ‘들어본 적 없다’는 46.2%로 가장 많았다. ‘들어는 봤지만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43.5%

로 그 다음이었다.

주민자치회는 동(洞) 단위에 설치된 주민 자치 기관이다. 지역의 현안 문제를 주민 스스로 논의·해결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됐으며, 근거 법령에 따라 실제적인 의사 결정권과 예산 운영권, 관련 행정 권한을 위임받아 운용되고 있다.

주민자치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안전·건강·복지·문화·돌봄분야사업의제 발굴·계획 수립과 집행 ▲주민자치회 조직·운영(임원진 및 분과 구성) ▲지역 내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 등이 있다.

‘현 주민자치회 제도 하에서 주민의 요구가 행정에 얼마나 반영된다고 생각하는냐’는 물음에 가장 많은 47.3%의 응답자가 ‘보통이다’고 답변했다. ‘반영되고 있다’는 36.7%,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16%였다.

지금의 주민자치회 제도 아래에서 주민행정의 중심이 주민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45.2%였다. 이어 ‘보통이다’ (41%), ‘그렇지 않다’ (13.8%) 순이었다.

향후 희망하는 주민자치회의 역할로는 ‘동 주민센터와 협의 및 업무협력’이 68.8%로 가장 많았다. ‘동 주민센터의 업무 직접 수행’ (16.8%), ‘동 주민센터 지휘·감독’ (9.8%)이 그다음이었다.

희망하는 형태의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면 주민의 요구가 행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6.8%에 달했다. ‘보통이다’는 33.3%,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는 9.8%였다.

시의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주민자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1@

강득구 의원, 정부 후속조치 촉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 급식종사자 폐 CT 검진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의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이 16년 전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은 당시 23세에 불과했던 황모씨가 떠난 날임을 상기했다.

지난 2021년 12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학교 급식종사자 4만여 명을 대상으로 폐 CT 검진을 실시했다. 강득구 의원실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검진 결과에 따르면, 수검자 수 4만2077명 중 1만3653명이 ‘이상소견’인 것으로 나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실

났다. 이는 전체 수검자 수의 무려 32.4%에 달하는 수치다.

강 의원은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폐암 문제는 목숨과 직결되는 절실하고 시급한 민생 문제”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신하은 기자

고양시
보도 정비사업 59억 투입

고양시가 걷기 좋은 도시로 거듭난다. 시는 올해 59억원을 투입해 어울림로 등 15개소에 보도 정비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정형화된 보도블록에서 벗어나 평탄하고 내구성을 강화한 보도블록을 적용해 보도의 안전성과 디자인을 강화하는 이번 보도 정비 사업의 총사업비는 59억 2000만원, 면적은 41,192㎡이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서울시 ‘서울핀테크랩’ 입주 기업 모집

서울시는 다음달 2일까지 핀테크랩 스타트업 육성 기관인 ‘서울핀테크랩’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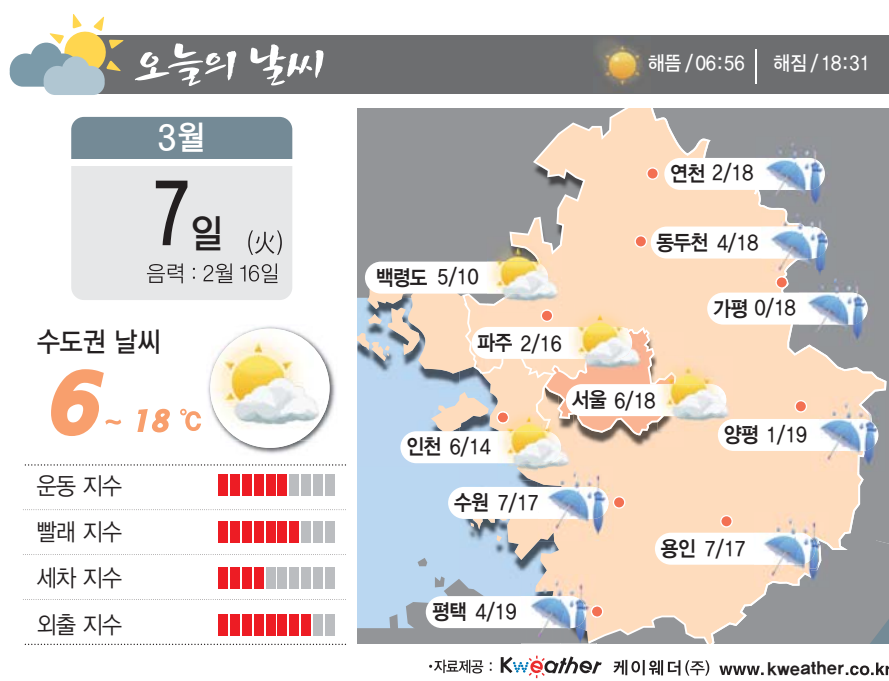
서울핀테크랩은 지난 2018년 4월 영등포구 여의도에 문을 연 창업지원 시설로, 현재 국내 83개사와 해외 3개사를 포함 총 86개의 핀테크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다.

시는 작년 한해 입주기업이 728억원 투자유치, 1592억원 매출액 달성, 825

명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핀테크 분야에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이템을 보유한 국내·외 핀테크 스타트업이면 입주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핀테크랩 입주기업에 사무실 공간, 아이템 사업화, 투자·마케팅·기술개발 등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김현정 기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중국 리커창 총리, 퇴임 전 ‘하늘이 보고 있다’ 고별사 /사진 뉴시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통제권 반환 협상 난항

▲미국 상원서 외국 기술 제품 금지법… 틱톡 등 포함
▲미인대회 우승한 태국인 트랜스젠더, 현지 재벌과 결혼 /사진 뉴시스



▲중국 과학기술부, 챗GPT 기술력 고 평가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 이달 중 미국서 귀국 의사 /사진 뉴시스



[라이프]
“캐릭터 담은
달달한 캔디
선물하세요”
L1

metro®

Life

[라이프]
아티스트 컬래버
소비자·브랜드
다 잡았다
L2



3대째 잇는 ‘수송보국’… 불황 난기류 뚫고 ESG경영 ‘飛上’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대한항공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창업주의 수송보국 경영철학을 실천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다져나가고 있다.

조원태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업계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도 대한항공의 경영 정상화는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사로서 다양한 활동으로 기업의 책임을 다해왔다. 대한항공은 팬데믹 기간동안 여객기 개조 화물기, 화물전용여객기 운영 등의 기민한 위기 대응을 통해 코로나19 기간 동안 백신 및 주요 의료 장비를 전 세계로 수송하는 한편, 항공 화물 공급 확대를 통해 수출기업 지원 및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 대한항공은 탄소 감축 및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정유사, 항공기 제작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도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 통합 작업을 비롯해 한진그룹 창업이념인 ‘수송보국’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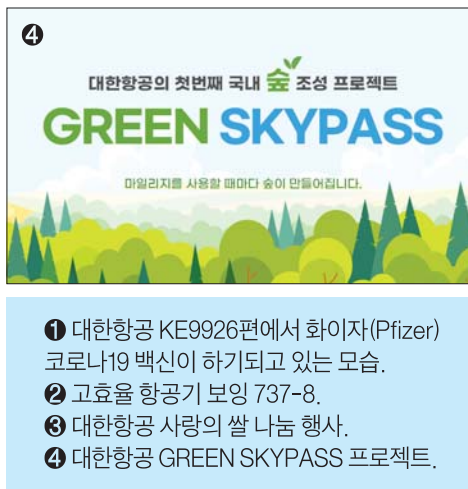
◆백신 수송으로 코로나 극복에 일조

대한항공은 2020년 9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전담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하며 완벽한 백신 수송을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진행해 왔다. 특히 백신 제조사별로 수송 조건이 -60℃ 이하의 극저온, -20℃ 이하의 냉동, 2~8℃의 냉장 유지 등으로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다양한 온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콜드체인 강화 및 시설 장비 보강 등에 중점을 뒀다.

대한항공은 2021년 2월 유니세프와 코로나19 백신 및 의료물품의 글로벌 수송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코백스 퍼실리티가 확보한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전 세계로 운반했다.

특히 대한항공은 온도에 민감한 화물 운송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공동투자를 통해 지난 2021년 9월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에 쿨 카고 센터(신선화물 환적창고)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이런 특수화물 맞춤형 서비스는 코로나 상황 속 긴급 방역물품을 수송하는데 일조했으며 지금까지 1억 회분 이상의 코로나 백신을 수송했고, 코로나 치료제,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을 전 세계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송하고 있다.

또 대한항공은 하늘길이 막힌 우리 국민들을 위해 중국 우한을 시작으로 해외 각처에 전세기 및 임시편을 운항하여 6000명 이상의 국민들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국민 귀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체코 등 당사 취항국가의 자국민 귀환 수송도 적극 지원했다.



팬데믹에도 위기 대응, 경제 활성화 앞장
코로나 백신, 구호물자 전 세계로 운반
하늘길 막힌 교민 위해 귀환 수송 지원

2050년까지 탄소중립 공동 목표 합의
저탄소 항공기술 등 친환경 기술 연구
고효율 항공기 도입, 탄소배출량 감축

지구촌 자연환경 위해 녹지화 앞장
20년째 ‘사랑의 쌀’ 사회공헌 활동도

◆‘2050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 박차

대한항공은 2021년 10월 항공업계의 유엔(UN)으로 불리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총회에서 2050년까지 항공업계 순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2050 탄소중립’ 공동 목표에 합의했다. 대한항공은 이를 지지하고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감축수단을 도입하는 한편, 정부·정유사·항공기 제작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및 기회요인 분석·평가는 C-Level 임원을 필두로 한 환경경영 조직을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속가능 항공유 활성화’를 위해 2021년 6월 국내 정유사인 현대오일뱅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생산·사용 기반 조성 및 시장조사 및 연구개발 등에서 협력하고 있다.

발 등에서 협력하고 있다.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는 항공기 부품 제작사로서 저탄소 항공기술 연구를 비롯해 다양한 친환경 항공기 구조물 설계·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미래 주요 탄소감축 수단인 ‘수소 항공기’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2월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어버스 코리아·에어리퀴드 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협약에서 대한항공은 항공기 운항 관련 지상조업·정비·운항 부문의 수소연료 도입 로드맵을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친환경 환경기 도입 등 ESG 경영 가속화

현재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고효율 항공기 도입을 통한 연료효율 개선이다. 대한항공은 적극적인 신형 고효율 항공기 도입전략을 통해 국내 FSC(Full Service Carrier) 중 가장 낮은 수준인 11.3년의 평균기령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한항공이 최근 도입한 A321neo, B787-9, B737-8은 동급기종 대비 좌석당 탄소배출량을 20~25%까지 감축할 수 있는 고효율 항공기이다. 대한항공은 이와 같이 적극적인 고효율 항공기 도입전략을 통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대한항공은 차세대 친환경 항공기인 보잉 787 도입 관련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ESG 채권 중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대한항공은 2021년 7월 국내 항공사 최초

로 3500억원 규모의 ESG 채권을 발행했다. 대한항공의 ESG 금융 인증 평가를 받은 한국신용평가는 녹색채권 인증 최고 등급인 GB(Green Bond) 1등급을 부여했다.

또 대한항공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분야에서 경영 성과를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 최근 대한항공은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DJSI) KOREA’에 새로 편입했다. 이 지수는 매년 ESG 성과를 평가해 발표하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지표다.

최근 세계 최대 주주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의 ESG 평가에서도 항공산업 부문 상대평가 1등급을 받기도 했다. 또 올해 국내 ESG 평가기관인 한국ESG기준원(KCGS)으로부터 2020년 이후 3년 연속 통합 등급 A등급을 받고 있다.

대한항공이 국내외 기관에서 높은 등급의 ESG 평가를 받는 것은 ESG 경영 강화를 위한 수년 간의 노력 덕분으로 풀이된다. 2020년부터 대표이사과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고 사외이사후추천위원회 위원을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등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여왔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대한항공은 세계 곳곳을 취향하는 글로벌 항공사로서 지구촌 자연환경 개선을 위해 몽골, 중국 등지에서 ‘글로벌 플랜팅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몽골 바가노르구 사막화 지역에 2004년부터 44ha 규모의 ‘대한항공 숲’에 약 12만 50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 녹지화에 힘쓰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중국 쿠부치 사막에 521ha 규모의 ‘대한항공 녹색생태원’을 조성해 현재까지 약 15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대한항공은 2021년 10월 마포구와 대한항공 스카이프าส 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스카이프라스 숲은 기후변화 방지와 탄소 중립을 위한 친환경 숲 조성에 대한항공 스카이프라스 회원이 직접 참여하는 ‘GREEN SKYPAS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포구 선형의 숲에 첫 번째 스카이프라스 숲을 만들 예정이다.

또 대한항공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대한항공 임직원은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다양한 나눔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사랑의 쌀’ 후원은 2004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20년째로 대표적인 지역사회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 잡았으며, 대한항공이 올해까지 후원한 쌀은 95톤에 달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바스타비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하이브, SM 블록딜 권유 루머에 사실 무근 반박…법적 대응 예고 /사진 뉴시스
▲지드래곤, SNS에 ‘돈을 벌어야’ 메시지…کم백 가능성 제기

▲‘피아노 황제’ 폴리니, 건강문제로 또 내한 취소
▲씨름협회, 2025년까지 전남 장흥서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 개최



▲‘왕따논란’ 김보름-노선영, 10일 항소심 재계
▲탁구 조승민-안재현 팀, 국제대회서 일본 꺾고 우승 /사진 뉴시스